

中國 祭服의 象徵性에 關한 研究

圓光大學校 衣裳學科
교수 李 善熙

| 目次 | |
|--------------|-------------|
| I. 序論 | III. 色의 象徵性 |
| 1. 研究 目的 | 1. 正色 |
| 2. 研究範圍 및 方法 | 2. 間色 |
| II. 形象의 象徵性 | IV. 結論 |
| 1. 祭冠 | 參考文獻 |
| 2. 祭服 | 圖錄 |
| 3. 祭服의 附隨品 | ABSTRACT |

I. 序論

1. 研究 目的

人間의 삶을 天地間의 和合으로 보고 陰陽의 變換으로 보아온 中國人은 衣服 역시 自然의 運行에 따른 規範의 產物로 생각하였다. 人間은 天地가 이룬 世界의 中心이고 五行이 낳은 萬物의 우두머리이며, 人間만이 色彩를 區別하여 衣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聖人이 여러 種類의 法을 設定할 때 天地를 바탕으로 하고 陰陽의 理致를 根本으로 했으며 四時의 推移와 해와 별의 運行, 달의 盈虛, 여러 神靈의 作用, 五行의 機能을 근거로”¹⁾한 것이다.

이와같이 人間과 宇宙의 모든 현상은 陰陽의 두 原理에 의하여 消長되며, 宇宙間에 運行하는 것은 金, 木, 水, 火, 土의 五元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陰陽五行說은 戰國時代末 齊의 鄒衍에 의해 제창된 아래로 中國의 傳統의 思想의

基礎가 되었다. 특히 禮의 重視論者로 中國 最初의 教師라고 할 수 있는 孔子에 의하여 禮의 思想과 함께 五行說이 展開된 아래로 後儒들에 의하여 繼承되었다. 더욱 衣服 中에서도 禮를 가장 重要視하는 祭服에서의 陰陽과 五行說은 그 形態의 인面과 色相에 絶對的인 象徵性을 附與하였다.

그러므로 本 論文에서는 中國 祭服에 나타난 象徵的인 面을 形態와 色相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2. 研究 範圍 및 方法

人間이 制定한 禮中에서 가장 큰 祭祀는 그 對象에 따라 公祭禮와 私祭禮로 區別할 수 있으나, 前者는 郊祭, 社稷祭, 宗廟祭, 山川, 五祀祭 등으로 國家에서 主宰하는 것으로 祭官은 主로 王이나 百官이 되는 경우다. 後者는 嚮祭禮로 작고한 조상에게 지내는 경우로 主로 家族間에 이루어지게 된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祭祀 中에서도 王이나

1) 「禮記」卷九 禮運：…故聖人作則，必以天地爲本，以陰陽爲端，以四時爲柄，以日星爲紀，月以爲量，鬼神以爲，以爲質…

百官이 祭官으로 執行하는 公祭禮의 祭服을 研究 對象으로 하였다.

研究範圍는 中國 周代의 祭服을 中心으로 하였으며 研究方法은 大部分 文獻資料로 現代文獻보다는 古文獻을 為主로 하여 古典은 註譯된 書籍을 原典과 比較하면서 根據로 하고자 한다.

II. 形象의 象徵性

1. 祭冠

祭祀時에 重要한 着用物 中의 하나인 祭冠은 象徵의 인 儀禮物로서 孔子 아래로 오랫동안 儒學者 들의 禮論의 對象이 되어왔다.

「後漢書」에 의하면 鳥獸의 冠, 角, 頤, 胡의 制를 보고 冠冕纓襪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니²⁾ 결국 새와 짐승의 모습을 形象化한 것이 冠이라고 볼 수 있다. 「杜佑通典」에 의하면 黃帝가 처음으로 冕을 만들었으니 布帛으로 하였다.³⁾ 또한 「世本」에는 胡曹가 冕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그 注에 胡曹是 黃帝의 臣下라고 하였다.⁴⁾ 대개 冕服은 黃帝로부터始作되었으며 裝飾을 加한 것은 唐虞로 부터였다.

祭冠의 代表的인 것으로는 冕冠이 있으나 이는 大夫 以上이 公廟에서 쓰는 冠이다.⁵⁾ 이 冠은 時代에 따라 名稱이 다르니 「禮記」에 “有虞氏는 皇冠을 쓰고 祭祀를 지냈으며… 夏后氏는 收冠을 쓰고 祭祀를 지냈으며… 殷나라 사람들은 虜冠을 쓰고 祭祀를 지냈으며… 周나라 사람들은 冕冠을 쓰고 제사를 지냈다”⁶⁾ 라고 하여 舜禹代에는 皇冠, 禹禹代에는 收冠, 殷人은 虜冠이며 周나라에

이르러 冕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冠의 源流를 살펴보면 黃帝는 黃冠⁷⁾을 썼으니 上述한 바와 같다. 帝堯의 冠에 대하여는 「史記」에 “帝堯者…黃收, 純衣…”⁸⁾라고 하였으며, 注에서 收는 冕의 이름으로 色이 黃이므로 黃收이고 純衣는 士의 祭服이라고 說明하였다. 「大戴禮記」에서 孔子는 帝堯의 德을 稱頌하면서 “黃黼黻衣에 丹車, 白馬를 탔다”⁹⁾고 하였다. 黃黼黻衣는 「史記」에서 指稱한 黃收純衣와 같이 黃色의 冕과 翳黻衣 즉 祭服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黃帝나 帝堯가 黃冠을 쓰고 祭祀를 지냈다는 記錄은 없으니 冕冠을 쓰고 祭祀를 지낸 것은 禹禹代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論語」에서 孔子는 “禹禹代에 대하여서는 내가 더 할 말이 없다. 자신의 飲食은 簡略하게 먹으면서도 鬼神은 至誠껏 모셨고 自己의 衣服은 儉素하게 입었으나 祭服인 翳冕은 더없이 아름답게 했고…”¹⁰⁾라고 하여 祭服을 格式에 맞추었음을 稱讚하면서 禹禹代이 祭祀를 行하였음을 說明하였다. 이어서 孔子는 麻冕이 禮이나 지금에 와서는 純綢絲로 하고 있으니 節減을 하기 위해서다. 나도 여러 사람들을 따르겠다”¹¹⁾고 하였다. 孔子가 禮冠이라고 하는 麻冕은 周代의 宗廟祭의 冠으로¹²⁾ 그 당시에는 五冕을 다 麻로 만들었다. 冕의 上을 덮은 縰을 麻로 만들었으므로 麻冕이라는 것이다. 麻를 使用함은 太古에 皮冒를 쓰다가 麻를 재배하여 冕을 만들어 썼으니 옛일을 잊지않게 하기 위함이다. 先儒들이 말하기를¹³⁾ 옛날에는 縰을 麻三十升으로 만들었으니, 麻의 尤精인 것이다. 「書經」에 成王이 죽고 康王이 顧命을 받들때의 服飾이 나타나니¹⁴⁾ 王은 麻冕에 翳裳이고 卿士邦君은 麻冕에 蟻裳이

2) 「後漢書」志第三十, 興服下: …見鳥獸有冠角頤胡之制遂作冠冕纓襪, 以爲首飾.

3) 「欽定古今圖書集成」, 冠服部彙考一, 上古條; 黃帝造冕旒始用布帛作…

4) 「格致鏡原」, 卷十三 冠服類, 冕條, 世本; 胡曹作冕注胡曹黃帝臣也, 蓋冕服起於黃帝加飾起自唐虞.

5) 「禮記」第二十雜記上: …大夫冕而祭於公.

6) 「禮記」第五王制; 有虞氏皇而祭… 夏后氏收而祭… 殷人虜而祭… 周人冕而祭.

7) 「欽定古今圖書」, 冠服部彙考一, 上古條; 世本云黃帝作綰冕合誠圖云黃帝黃冠白帝白文故三禮圖言黃帝黃冠也.

8) 「史記」卷一, 五帝本紀第一.

9) 「大戴禮記」卷第七, 五帝德第六十二: …宰我曰請問帝堯孔子曰… 黃黼黻衣丹車白馬…

10) 「論語」第八篇泰伯二十一: 子曰: “禹, 吾無間然矣! 菲飲食, 而致孝乎鬼神, 惡衣服, 而致美乎黻冕…”.

11) 「論語」第九篇 子罕三: 子曰…麻冕禮也. 今也純儉, 吾從衆.

12) 「白虎通德論」卷第十, 佛冕; …絕所以用麻爲之者女功之始亦不忘本也.

13) 陳祥道, 「禮書」卷四, 縰條.

14) 「書經」第四篇 周書, 第二十四章顧命; 王麻冕黼裳… 卿士邦君, 麻冕, 蟻裳…太保, 太史, 太宗皆麻冕形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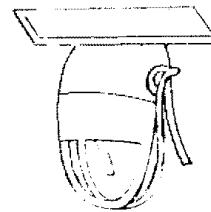
고 太保, 太史, 太宗은 모두 麻冕에 形裳이다. 成王
의 祭祀와 더불어 顯命을 받았기에 康王과 執事者
인 太保, 太史, 太宗은 祭服차림을 하고 있다. 즉
王은 麻冕에 蘭裳이고 太保, 太史, 太宗은 麻冕에
形裳이다.

이와같이 麻冕은 夏代 以後로부터 周代까지는 麻冠이었으나 孔子時代에는 麻冕이 아닌 絹絲로 짠 冠이 着用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孔子는 顏淵이 나라 다스리는 法을 묻자 各 時代의 文物 制度 中에서 長點을 말하였으니 “行夏之時，乘殷之輅，服周之冕…¹⁵⁾”이라고 하여 周代의 冕冠制度가 잘 갖추어졌음을 力說하였다.

위의 皇冠, 收冠, 冕冠에 대하여 「古今圖書集成」에서는 모두 “冕의 名”¹⁶⁾이라고 하였다. 冕이라는 名稱은 「三禮圖」에 “冕者俛也 後高前下有俯之形”¹⁷⁾이라고 한 것과 같이 숙었다는 의미로 뒤는 높고 앞은 낮아서 엎드린 形象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그 形態에 대하여 鄭鍔은 「周禮」의 注에서 “넓이는 8寸, 길이는 넓이의 倍로, 前圓 後方이며 後仰前俛이다. 앞부분이 圓이며 俛인 것은 向明이며 物交의 뜻이고 뒷부분이 方이며 仰인 것은 向晦이며 物藏의 뜻이다. 冕版의 上이 玄인 것은 天道요, 下가 繡인 것은 地道를 상징한 것 ”¹⁸⁾이라고 하여 冕冠의 前面은 밝음과 나타냄을, 後面은 어두움과 감춤을 상징하였으며 冕版의 色은 天, 地를 象徵하였다. 이러한 冕冠은 爵弁에 源流를 두고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¹⁹⁾ 爵弁 그 自體는 아니다. 爵弁은 冕의 다음 가는 것으로 形態는 <圖 1>과 같이 앞뒤가 평평하고 色이 붉고 조금 검은색이 있으니 爵頭와 같다. 그러므로 色으로서 指稱한 것이다.²⁰⁾ 冕冠은 爵弁과는 달리 平天板 前後에 늘린 旒가 있으니 遼延이 그것이다. <圖 2>는 冕의 構造로 平天板, 遼延, 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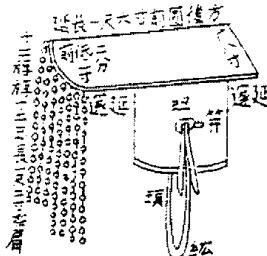
壤, 紜, 爰 가 있으며 冕의 左右에는 繢이 있으니 이에는 黃絲繢과 靑繢의 구별이 있다. 「事物記原」에는 旒과 繢에 대한 象徵性이 기록되어 있으니 “黃帝가 冕冠을 만들어 旒를 늘어 놓은 것은 邪惡한 것을 보지 못하고 繢으로 귀를 막는 것은 謙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²¹⁾라고 하여 統治者로서의 德目을 갖추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禮라는 것은 君主에게 있어서 治國의 수단이 된다. 그 中에서도 君主는 祭禮를 통하여 人間을 神에게 접근시키는 역할을 하여 禮儀 道德을 수립함으로써 바른 政治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禮記」에 “王이 제삿날에 十二旒의 積가 있는 冕旒冠을 쓰는 것은 하늘의 數를 본뜬 것”²²⁾이라고 하였다. 즉 하늘의 數는 12이고, 그렇기 때문에 十二支로 나누어지며 1년은 열두 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冕旒冠은 祭祀의 對象과 命의 數에 따라
다르니 「周禮」에 의하면 “王의 吉凶衣服이 名物과



〈圖 1〉爵弁冠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195面)



〈圖 2〉冕冠의 構造

(「儀禮圖」，卷一衣服)

15) 「論語」第十五篇衛靈公十、

16) 「欽定古今圖書集成」, 禮儀典第三百十七卷, 冠服部 彙考 – (3040~3046面 參照)

17) 「格致鏡原」，卷十三，冠服類，冕條。

18)「周禮」卷第五，春官宗伯上，司服，注；鄭鍔曰…凡冕之制版廣八寸長倍之前圓後方後仰前俛飾之以布上玄下朱圓其前而俛之向明與交之義方其後而仰之向晦與物藏之義上玄以象天道之升下纊以象地道之…

19)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189面.

20) 王闡仕，「儀禮服飾考辨」（臺北：文史哲出版社，中華民國六十六年）15頁；士冠……「爵弁服」注……「爵弁者，冕之次，其色赤而微黑，如爵頭然，或謂之綏」疏……「…其爵弁則前後平，故不得冕名。」

21) 「事物記原」冕條：…黃帝作冕垂旒用不邪視也。充繡耳不聽謗言也…

22) 「禮記」第十一郊特性：…祭之日…載冕璪十二旒則天數也

用事로서 구별된다.昊天上帝에 祭祀한즉 大裘冕이며 先王을 흠향한즉 袞冕, 先公을 흠향한즉 鮑冕, 四望山川인즉 麟冕이며 社稷五祀인즉 希冕, 모든 群小에 祭祀한즉 玄冕”²³⁾이라고 하여 天子의 服은 六이 되고, 冕은 五가 되니 大裘冕에는 無旒冕이기 때문이다. 五冕은 旒와 玉의 數에 따라 차이가 나니 袢冕은 前後十二旒에 五采繅로 十二就이니 玉은 288이다. 그러나 「禮記」에는 天子의 冕은 朱綠藻十二旒²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陳祥道²⁵⁾는 朱綠藻는 夏商의 禮와 비슷하고 五彩藻는 周代의 禮라고 하였다. 그外 鱗冕, 麟冕, 希冕, 玄冕은 〈表1〉과 같으니 天子가 祭祀의 對象에 따라 禮에 맞게 輕, 重, 大, 小로 구별하여 旒冠을 着用한 것이다.

〈表 1〉 古代 天子의 五冕 制度

| 旒玉數 種類 | 旒의 數 | 玉의 數 |
|-----------|-------|-------------|
| 衰冕 | 前後十二旒 | 五采繅十二就 288顆 |
| 鱗冕 | 前後九旒 | 五采繅十二就 216顆 |
| 麟冕 | 前後七旒 | 五采繅十二就 168顆 |
| 希冕 | 前後五旒 | 五采繩十二就 120顆 |
| 玄冕 | 前後三旒 | 五采繩十二就 72顆 |

「周禮」典命에 의하면²⁶⁾ 諸侯는 公, 侯, 伯, 子, 男의 五儀가 있고 諸臣에게는 孤一以四命으로 부터 三命, 再命, 一命, 不命의 五等이 있어 命으로 服을 조절한다. 즉 上公은 九命이니 그 衣服은 九로서 조절하고, 侯伯은 七命이니 七로서 조절하며, 子男은 五命이니 五로서 조절한다. 그外 王의 三公은 八命, 卿은 六命, 大夫는 四命이다. 公의 孤는 四命이고 卿은 三命, 大夫는 再命, 士는 一命이다.²⁷⁾ 이에 따른 祭服은 〈表 2〉와 같으니 각기 그 命의 數와 같이 하였다.

이로 인하여 孤卿大夫중에도 王이 수속된 者와 諸侯에 소속된 者는 命數가 다르므로 冕冠 역시

〈表 2〉 周代 諸侯와 諸臣의 冕冠制度

| 職分 | 內容 | 冕의 名 | 旒의 數 | 玉의 數 |
|--------------|----|------|------------|------|
| 上公 | 衰冕 | 前後九旒 | 三采繩九就 162顆 | |
| | 麟冕 | 前後七旒 | 三采繩七就 98顆 | |
| | 鰐冕 | 前後七旒 | 三采繩七就 98顆 | |
| | 毳冕 | 前後五旒 | 三采繩五就 50顆 | |
| | 毳冕 | 前後五旒 | 三采繩五就 50顆 | |
| 王의 三公 | 鰐冕 | 前後八旒 | 八就 128顆 | |
| | 毳冕 | 前後六旒 | 六就 72顆 | |
| | 毳冕 | 前後六旒 | 六就 72顆 | |
| | 希冕 | 前後四旒 | 四就 32顆 | |
| 諸侯의 孤卿大夫(再命) | 希冕 | 前後四旒 | 四就 32顆 | |
| | 玄冕 | 前後三旒 | 三就 18顆 | |
| | 玄冕 | 前後二旒 | 二就 8顆 | |
| | 玄冕 | 前後一旒 | 一就 2顆 | |

차이가 난다. 公, 侯, 伯, 子, 男은 命이 九, 七, 五로 陽의 數가 되며 王의 公, 孤, 卿, 大夫는 命이 八, 六, 四로 陰數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冕冠의 旒도 陰陽의 調和로 旒의 數를 정하였으며 冕冠의 名에 있어서도 衰冕은 天子의 宗廟祭冠이며 上公의 助祭冠이다. 다만 天子의 冠은 十二旒에 五采繩十二就로 玉이 288顆이나 上公의 袢冕은 九旒에 三采繩九就로 玉이 162顆로 旒의 數와 繩과 玉의 顆가 감소되었다. 그外 鳴冕, 麟冕, 希冕, 玄冕에서도 天子의 祭服을 기준으로 하여 職位의 高低를 命으로 지적하고 각官의 祭服과 祭冠을 定함으로써 統治者의 絶對王權의 概念을 一般百姓들에게合理화시킨 것이다.

2. 祭服

中國의 祭服은 發生初부터 貴賤의 等級을 目的으로 始作되었으니 「書經」에 “하늘이 德 있는 이에게

23) 「周禮」卷第五, 春官宗伯上, 司服; 掌王之吉凶衣服辨其名物, 與其用事, 王之吉服, 祀昊天上帝則服大裘而冕, 祀五帝亦如之, 享先王則衰冕, 享先公饗射則鰐冕, 祀四望山川則麟冕, 祀社稷五祀則希冕, 祀群小祀則玄冕。

24) 「禮記」第十禮器: …天子之冕, 朱綠藻, 十有二旒…

25) 陳祥道「禮書」卷三, 諸侯及孤卿大夫之服條: 朱綠藻似夏商禮, 周禮天子五采藻,

26) 「周禮」卷第五, 春官宗伯上, 典命; 掌諸侯之五儀諸臣之五等之命,

27) 陳祥道, 「禮書」卷三, 諸侯及孤卿大夫之服條。

命하시어 五服으로 五章을 나타내었다”²⁸⁾는 것은 天子, 諸侯, 卿, 大夫, 士²⁹⁾의 계급을 差等지음으로서 統治者인 天子가 諸侯나 卿大夫士 등에 명령을 내릴 때는 작위를 주면서 아울러 服을 하사하였으니, 모두 天命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階級의 差異를 視覺的으로 表現한 것이 衣服이니 이를 통하여 群臣으로 하여금 道理를 分別하게 하여 天地間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上古에 아직 집이란 것이 없이 둥굴에서 살고 들에서 居處하였을 때에는 물을 使用할 줄 몰랐기 때문에 草木의 열매나 鳥獸의 生肉을 먹고 그 가죽으로는 毛衣를 만들어 입고 皮冒를 만들어 썼던 것이다. 그 후 聖人이라고 칭하는 伏羲에 이르러 布帛으로서 衣服을製作하였고³⁰⁾ 黄帝 때에는 冕服과 冕冠을 始制하여 貴賤의 差等을 나타내었다.³¹⁾ 다시 말해서 皮衣로 衣服을 삼았을 때에는 上衣와 下裳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나 羲帝와 炎帝 아래로 衣와 裳이 나누어지니 이로서 禮服을 삼은 것이다. 그러나 「帝王世紀」에는 黄帝가 비로소 皮服을 벼리고 上衣는 天의 形象을 보고, 下裳은 地의 形象을 보고 만들었다고 하였다.³²⁾ 黄帝가 만든 衣服은 冕服이니 「周易」 繫辭傳에 衣裳을 드리우고 天下를 다스렸으니, 대개 乾, 坤에서 取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疊山謝氏는 “乾天은 위에 있으니 衣의 形象으로, 위를 덮기 때문에 陽과 奇의 形象이다. 坤地는 아래에 있으니, 衫의 形象으로 衫아래 兩股가 있으니 陰과 陽의 形象이다”³³⁾라고 하여 衣裳을 陰陽으로 說明하면서 等級을 지웠다. 더욱 祭服의 衫은 襪積이 無數이니, 前三幅, 後四幅이 된다. 賈公彥은 “前은 陽이 되고 後는 陰이 되며 前은 三幅, 後는 四幅이니 陰陽의 調和를 이룬 것”³⁴⁾이라

고 하여 衫의 形態를 陰陽의 調和로 說明하고 있다. 즉 衣와 衫은 陰, 陽과 天, 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天을 象徵하는 天子는 百姓들에게 上下 尊卑를 바르게 알도록 하여 天下가 禮에 맞게 다스려지도 록 한 政治의 道理를 說明하였다.

그러므로 祭祀의 對象이나 天子, 諸侯, 大夫등과 같은 職分에 따라 祭服이 각각 달랐으니 앞의 祭冠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즉 「周禮」에 나타난 天子의 祭服으로는 吳天上帝와 五帝에 祀한 즉 大裘冕을 着用하고 享先王인 즉 袞冕, 享先公인 즉 鮶冕, 四望山川에 祀한 즉 麟冕, 社稷五祀에 祭한 즉 希冕, 群小祀에 祭한 즉 玄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祭服은 諸侯나 諸臣들도 天子와 同一한 명칭의 冕服을 着用하였다. 그러나 天子는 祭祀의 輕, 重에 따라 祭服이 달라지고 諸侯나 諸臣들에 있어서는 命의 數에 따라 달라지니 冕冠의 경우와 同一하게 差等을 보였다. 大裘冕, 袢冕, 鮶冕, 麟冕, 希冕, 玄冕이라는 것은 祭服과 祭冠이 합하여진 명칭으로 앞에서 冕冠에 대하여서는 설명하였으므로 大裘, 袢服, 鮶服, 麟服, 希服, 玄服에 대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1. 大裘

裘는 털옷을 이름하니 「說文」에 “裘皮衣蓋上古衣毛冒皮之貴象也”라고 하여 上古에 毛를 입었던 형상이 남은 것이다. 裘에 대한 起源은 오래 되어 伏羲가 裘를 지었다고 하였으며,³⁵⁾ 黄帝 때에는 꿈에 西王母가 玄孤裘를 주었다는 것으로³⁶⁾ 미루어 이미 이름이 있었다. 원래 裘는 추위를 막기 위한 實用의 一面으로 着用되었으니 「白虎通」에 “裘所以佐女工助溫也”³⁷⁾라고 하여 保溫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초겨울이 되면 天子가 비로소 裘를 입어³⁸⁾ 추위

28) 「書經」第一篇虞書, 第四章 皋陶謨 : …天命有德五服五章哉….

29) 陳祥道, 「禮書」卷三, 諸侯及孤卿大夫服條注 : 王服天子諸侯卿大夫士.

30) 「欽定古今圖書集成」經濟彙編, 禮儀典第三百十七卷, 冠服部彙考一, 上古, 太昊伏羲條 : 太昊伏羲氏始制布帛以給衣服.

31) 上揭書, 黄帝條 : 黄帝有熊氏始制冕服以別貴賤之等… 按許氏說文黃帝始用布帛作冕.

32) 「格致鏡原」卷十五 冠服類, 衣條, 帝王世紀 : 黄帝始去皮服爲上衣以象天爲下裳以象地也.

33) 「欽定古今圖書集成」冠服部彙考一上古條注 : …疊山謝氏曰乾天在上衣象衣上闊而圓有陽奇象坤地在下裳象裳下兩股有陰偶像….

34) 陳祥道, 「禮書」卷六, 衫條 : …賈公彥曰前爲陽後爲陰, 前三後四象陰陽也.

35) 「格致鏡原」卷十六, 冠服類四, 襪條 物原 : 伏羲作裘.

36) 「事物起原」裘條 : 黄帝出軍決曰 …夢西王母遣道人披玄狐之裘….

37) 「格致鏡原」卷十六, 冠服類四, 襪條, 白虎通 : 裘所以佐女工助溫也.

38) 「禮記」第六月令 : 孟冬之月…是月也. 天子始裘.

에 대비하였다. 이와같이 衣는 保暖을 目的으로 發生하여 實用的인 面으로서의 衣裳과 夏天上帝에 祭祀할 때의 大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衣裳에 대한 설명을 「論語」에서 보면 겨울에는 防寒을 위하여 衣를 입었으니 “그 길이는 길게 만들었으나 作業하기 쉽도록 오른쪽 소매는 짧게 만들었다”³⁹⁾고 한다. 陳祥道는 衣裳長에 대하여 설명하기를⁴⁰⁾ 衣裳는 길이가 길며 禮를 행하는 衣는 길이가 짧다. 한갓 大裘만을 입고 길이가 길게 한다면 衣裳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면서 이어 注에 衣裳는 그 길이가 帶아래 一尺이고 안에 입는 明衣는 무릎에 까지 내려가니 祭祀의 衣는 대개 明衣와 같다. 다시 말해서 王이 祭天의 服으로 着用하는 大裘는 日常用의 衣에 비하여 그 길이가 짧다는 것이다. 孔子가 衣裳를 着用한 모습을 보면 “緇衣에는 羔裘, 素衣에는 麋裘, 黃衣에는 狐裘”⁴¹⁾로 衣위에 입은 褐衣는 衣의 色에 따라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衣裳는 “私居之服”⁴²⁾이기에 狐貉으로 만들며 오직 保暖性만을 취하였기에 祭祀用의 大裘보다 品質이 좋은 것이다.

禮에는 간소할수록 上級의 禮로 여기는 경우가 있으니 자극히 공경하는 곳에는 文飾을 하지 않는다.⁴³⁾ 그러므로 하늘에 제사할 때에 天子는 羔裘를 입는다. 특히 羔裘를 입는 것은 羔는 무릎을 뚫고서 유순하게 젖을 먹기 때문에 恭遜함을 취한 것이다.⁴⁴⁾ 또한 “禮가 용승하지 않으면 衣服 위에 禮服을 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郊祭와 같은 大禮이면 祭主인 天子는 衣를 입지 않는 것”⁴⁵⁾이라고 하여 소박함을 소중히 여김을 설명하였다. 즉 儉素

함을 귀중히 여기니 이것은 神明과 사귀는 일이 지나치게 편안하고 조심성이 없는 일과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만 禮에 마땅한 것이다. 「周禮」에는 司裘는 大裘를 만들어 王이 하늘에 祭祀할 때의 衣服을 관장하였다고 하였으며⁴⁶⁾ 鄭司農은 注에 이르기를 大裘는 黑羔裘로 하늘에 祭祀하여 그 質을 보였다고 하였다.

祭天儀式은前述한 바와 같이 天子만이 지낼 수 있는 것으로 夏天上帝은 上帝중의 最高帝로서 하늘 전체를 지배하는 神이며 上帝란 夏天上帝을 세외한 神으로 南郊에서 祭祀를 지냈다. 「禮記」郊特性에 의하면 郊祭는 낮이 길어지는 것을 맞이하는 祭祀로 하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太陽을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이 郊祭에서 祭壇을 南郊에 설치하는 것은 陽의 方位를 취한 것이다. 郊祭라 칭한 것은 들에서 제사하기 때문이고 제사 날에 辛日을 사용하는 것은 周나라의 王室에서 처음으로 郊祭를 거행한 것이 冬至날이었기 때문으로 그로 인하여 이후부터는 辛日에 祭祀지내게 되었다.⁴⁷⁾

이와같이 郊祭는 周나라에서 처음으로 始行되었고, 周나라에만 있었다. 그러한 郊祭가 魯나라에서도 行하여지게 되었으니, 즉 周나라의 武王이 崩하자 周公은 어린 成王을 도와 天下를 다스리게 되었다. 7年後 政權을 成王에게 돌려주자 王은 周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周公을 大功人으로 魯나라의 曲阜에 봉하였다. 또한 成王은 魯公에게 命하여 子孫世世로 周公을 祭祀지내는데 天子의 禮로 行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魯의 임금은 孟春에 大路를

39) 「論語」第十篇卿黨六：…衣裳長，短右袂…。

40) 陳祥道, 「禮書」卷一大裘條；…衣裳長則凡行禮之裘短矣果徒。服大裘而加長焉其與衣裳奚異哉。注：衣裳帶下尺明衣長下膝則凡祭祀之裘蓋與明衣齊。

41) 「論語」第十篇鄉黨六。

42) 「格致鏡原」卷十六, 冠服類四, 衣裳條；身章舉要。

43) 「禮記」第十禮器；有以素爲貴者，至敬無文…。

44) 「白虎通德論」第八卷衣裳條；…羔者取跪乳遜順也。

45) 「禮記」第十三玉藻；禮不盛，服不充，故大裘不裼…。

46) 「周禮」卷第二天官冢宰下，司裘掌爲大裘以共王祀天之服。

47) 「禮記」第十一郊特性；郊之祭也，迎長日之至也。大報天而主日也… 於郊，故謂之郊。…郊之用辛也，周之始郊，日以至。

타고 孤轔을 세우며 旂에 十二旒를 드리우고 日月의 文章을 수놓았다.⁴⁸⁾ 이라하여 天帝를 郊에서 祭祀지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天子만이 行할 수 있는 郊祭를 諸侯國인 魯나라에서도 行할수는 있었으나 그 形式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孔子家語」에 의하면⁴⁹⁾ 周나라에서는 冬至에 郊祭를 지냈으나 魯에서는 冬至가 되어도 郊祭를 지내지 않았으니 이것은 天子와 諸侯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祭服도 周와 魯는 달랐으니, 周나라에서는 郊祭日에 天子가 大裘에 裳衣를 입지 않았으나⁵⁰⁾ 魯에서는 王이 泰壇에 이르면 裳를 벗고 衰服으로 燻柴에 臨하였다.⁵¹⁾

이와같이 郊祭에 大裘를 着用함은 周나라에서만 있었던 일로 「孔子家語」⁵²⁾나 「禮記」⁵³⁾에 나타난 郊祭時의 祭服은 裳위에 裳衣인 衰衣를 걸쳤으니 앞의 大裘만을 着用하였다는 것과 다르다. 즉 “郊祭日에 天子가 蘦黻을 입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 王이 泰壇에 이르게 되면 裳를 벗고 衰服으로 갈아입은 다음 燻柴에 나가게 되며 冕旒冠을 쓰되 十二旒를 드리우는 것은 하늘의 數를 法으로 받드는 때문이다”⁵⁴⁾고 하여 周나라에서 大裘에 無旒冠을 쓰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蘶裘에 대하여 「禮記」에서는 “오직 君만이 蘶裘를 입고 軍旅에 맹세하고 농사짓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 大裘를 입는 것은 古制가 아니다”⁵⁵⁾고 하여 大裘와 蘶裘를 구별지었다. 이로 미루어 大裘에 衰服을 裳衣로 입는 것은 周代의 天子가 郊祭時에 大裘만을 着用하는 制度와는 다른 것으로

위의 郊祭가 諸侯國인 魯나라의 郊祭時 祭服이거나 ⁵⁶⁾時代가 變하여 孔子가 살았던 時期에 이르러서는 郊祭時의 祭服에도 變化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冕服

「周禮」에서 보면 王의 冕服은 五種類가 있으니⁵⁷⁾ 衰服, 驚服, 羲服, 希服, 玄服이다. 즉 王이 享先王이면 衰服이고 享先公이면 驚服이며 祀四望山川이면 羲服이다. 社稷五祀이면 希服이고 祭群小祀이면 玄服으로 祭祀의 輕重에 따라 祭服을 달리하여 神明과 사귀는 도리를 다한 것이다.

(1) 衰服

舜임금이 古人の 形象을 보고 服을 지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衰服이다. 「書經」에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은 그림을 그려 넣었고 宗彝, 藻火, 粉米, 蘦, 翟은 수놓았다”⁵⁸⁾고 하여 十二章의 制度를 밝혔으니 舜임금때에는 이미 衣에는 六章을 그리고 衫에도 六章을 繡놓아 衰服의 制度가 정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陳祥道는 “華蟲은” 青이요, 宗彝는 虎彝와 雉彝이며 粉米는 그 쌀을 가루로 한 것이다. 蘶는 白과 黑의 무늬요 翟은 黑과 青의 무늬이니 대개 日, 月, 星辰은 하늘에 있을 때 形象을 이루는 것이다. 하늘에 있어 形象을 이룬다는 것은 이것을 운용하되 하늘에서 부린다는 것이고 땅에 있어 形體를 이룬다는 것은 아래에서 흘어지는 것이니 道는 진실로 始終이 東北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까닭으로 山龍들이 내려와 처음에는 山이

48) 「禮記」第十四明堂位；…武王崩，成王幼弱。周公踐天子之位以治天下。…致政於成王。成王以周公爲有勳勞於天下，是以封周公於曲阜。…命魯公世世祀周公以天子之禮樂。是以魯君孟春乘大路，載孤轔，旂十二旒，日月之章，祀帝于郊，配以后稷，天子之禮也。

49) 「孔子家語」第七卷，郊問第二十九；…郊之祭也，迎長日之至也。大報天而主日配以月故周之始郊其月以日至…魯無冬至大郊之事降殺於天子是以不同也。

50) 「禮記」第十三玉藻；…故大裘不裼。

51) 「孔子家語」卷第七，郊問第二十九；…既至泰壇，王脫裘矣。服衰以臨燻柴。

52) 上揭書，同條。

53) 「禮記」卷十一郊特性；祭之日，王被衰以象天…。

54) 「禮記」卷十一郊特性；祭之日王被衰以象天注；鄭氏謂有日月星辰之章此魯禮也。周祀昊天上帝則大裘而冕。

55) 「禮記」第十三玉藻；唯君有黼裘，以督省。大裘非吉也。

56) 「禮記」卷十一郊特性；祭之日王被衰以象天注；鄭氏謂有日月星辰之章此魯禮也。周祀昊天上帝則大裘而冕。

57) 「周禮」卷第五春官宗伯上，司服。

58) 「書經」第一篇虞書，第五章益稷；予欲觀古人之象，日，月，星辰，山，龍，華蟲，作會。宗彝，藻，火，粉米，黼，黻，絲繡…。

요, 마지막에는 鼓로서 마치니”⁵⁹⁾ 반드시 文章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地上에서 이루어지는 文章에는 四계절을 상징하여 나타내고 있다. 즉 山은 東北쪽에 居하여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때를 말함이요, 龍은 봄 동물이고 華蟲은 여름 동물이다. 호랑이는 가을을 상징하고 원숭이는 겨울을 상징한다. 周나라에서 처음을 회복한 즉 藻는 봄이요, 火는 여름이요, 粉米는 中央이요, 蘴는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때요, 鼓은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때인 것이다. 龍과 華蟲은 陽中에서도 陽이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려서 上衣에 두고 호랑이와 원숭이는 陽의 陰이다. 그리하여 繡를 놓아서 下裳에 두는 것이다.⁶⁰⁾ 舜임금때에는 日, 月, 星辰을 합하여 十二章으로서 衣服을 갖추니 하늘의 數를 본 받았다. 周代에 이르러서는 三辰은 旂에다 두고 다만 九章만을 입으니 陽의 數를 받은 것이다. 鄭康成은 “周나라의 服은 九章이니 龍을 山에 올리고 火를 宗彝에 올린 것은 그 神明을 밝히기 위해서”⁶¹⁾라는 것이다.

이 袞服을 「周禮」에서는 袞冕⁶²⁾이라 하였고 「禮記」에서는 “天子龍袢”⁶³⁾ 또는 “天子龍卷”⁶⁴⁾이라고 하였다. 卷은 袢과 같은 뜻으로 龍이 구부린 形象이나 龍德이 신기하고 특이하여 때에 따라서는 참기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天子가 龍袢 즉 龍卷을 입는 것은 하늘의 法則을 본 받으니 聖王의 지혜가 깊이 참기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는 무궁한 조화에 의하여 天道를 形象化하는 것이다.

(2) 鶩服

鶩服은 七章이니 衣에 華蟲, 火, 宗彝 三章이 있고 裳에는 藻, 粉米, 蘴, 鼓 4章이 있다. 鶩이란 雉이다. 雉는 事物의 五色을 갖추어 무늬를 이루기 때문에 夏나라에서는 翟이라 하였고 또한 華蟲이라 했다.⁶⁵⁾ 또한 「周禮」考工記에서는 “鳥獸蛇”⁶⁶⁾라고 하여 華蟲을 가리켰으나 鄭氏는 注에서 그 무늬는 衣에 있으나 華蟲의 毛鱗은 文彩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鶩服이라는 명칭은 華蟲으로 부터인 것이다. 「爾雅」에 의하면 雉의 種類로는 “鵠諸雉, 鶩雉, 鶩雉, 鳩雉, 秩秩海雉, 鶩山雉, 鶩雉, 翟雉”⁶⁷⁾가 있으나 衣服의 무늬로 사용되는 것은 鶩雉, 鶩雉, 翟雉이다.

鶩服은 天子가 先公을 祭享하여 饗射하는 祭祀에 着用하나, 先公은 先王보다 낮으므로 袢服이 아닌 鶩服인 것이다.

(3) 犀服

犀服은 五章이니 衣에 宗彝, 藻, 粉米 3章이 있고 裳에는 蘴, 鼓 2章이 있다. 犀란 「說文解字」에 의하면 “짐승의 가는 텔”⁶⁸⁾인 것이다. 犀衣에는 宗彝의 紋章이 맨 먼저 나타나니 「周禮」에서는 이를 犀冕이라고 부른 것이다. 王이 四望山川에 祭祀할 때 着用하는 祭服이니, 四望이란 岳瀆의 神이기에 山林에 사는 호랑이와 원숭이를 宗彝에 그려 그 形象을 밝히는 것이다. 호랑이는 의리를 취했고 원숭이로 부터는 그 지혜를 취한 것이다.⁶⁹⁾

犀服은 天子뿐 아니라 子男이나 天子의 大夫도 着用을 하였으나, 「詩經」에 “犀衣如袞…犀衣如

59) 陳詳道, 「禮書」卷一, 十二章之服條: 華蟲雉也, 宗彝虎彝鶩彝也. 粉米粉其米也, 蘴白黑文也. 鼓黑青文也. 蓋日月星辰在天成象者也. 山龍華蟲虎雉藻火粉米蘊鼓在地成形者也. 在天成象者道之運, 乎上在地成形者道之散乎下道固始終於東北故山龍而降如山終鼓

60) 上揭書 同條; …山居東北冬春交也. 龍春也. 華蟲夏也. 虎秋也. 鰐也. 周而復如則藻春也. 火夏也. 粉米中央也. 蘴秋冬交也. 鼓冬春交也. 龍與華蟲陽之陽也. 故繪而在衣虎與鶩陽之陰也. 故繡而在裳…

61) 上揭書 同條; …鄭康成謂周服九章登龍於山升火於宗彝以尊其神明理或然也.

62) 「周禮」卷第五春官宗伯上, 司服; …享先王則袞冕.

63) 「禮記」卷十禮器.

64) 「禮記」卷十三玉藻.

65) 陳祥道「禮書」卷一鶩冕條: 鶩冕七章鶩雉. 雉之爲物五色備而成章故曰夏翟亦曰華蟲….

66) 「周禮」卷第十一冬官考工記上; …鳥獸蛇注; 所謂華蟲也. 在衣. 蟲之毛鱗有文采者.

67) 「爾雅」第十七釋鳥.

68) 「說文解字」第八: 犀獸細毛也.

69) 陳祥道「禮書」卷一犀冕條: …虎取其義鶩取其智.

襦”이 있으니 이는 周代 天子의 大夫 祭服을
뜻한다. 「禮記」王制에 의하면 天子의 적속 신하에는 三公, 九卿, 二十七大夫가 있으니⁷⁰⁾ 이大夫는
天子의 四命을 받고 出封하게 되면 五命으로 그
服은 子男의 服인 龔服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如羹”은 달이 처음 나올 때의 빛으로大夫의
옷에 그려진 무늬 중에 푸른빛을 形容한 것이며
“如襦”은 붉은 빛으로⁷¹⁾ 모두大夫의 祭服을 지칭하
는 것이다.

(4) 希服

希服은 三章이니 衣에 粉米一章이 있고 裳에는
•, 靛二章이 있다. 希란 그 무늬가 적다는 것이니
鄭氏는 注에서 “希로서 繡라고 한 것은 繡를 가지고
繡를 놓는 것이니,⁷²⁾ 衣에 粉米一章을 그리지 않고
繡를 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다는 것은 陽의 일이므로
衣에다 두고 繡를 놓는다는 것은 陰의 일이므로
裳에다 두고 있으나, 希服에는 衣와 裳 모두에 繡놓
으니 衣도 陰이고, 裳도 陰인 것이다.

希服은 王이 社稷과 五祀에 祭祀할 때 着用하는
옷이다. 社稷이라고 하는 것은 土穀의 神으로 粉米
가 이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그 功을 形象化한 것이다.
그러므로 龔服보다 禮가 낫어서 衣에 粉米一章
인 것이 아니라 社稷과 五祀는 위에 있으니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⁷³⁾ 그러므로 粉米란 “그 결백
한 것과 또한 능히 사람을 기른다는 뜻을 취했으니
마치 쌀의 형태를 모아 놓은 것과 같아 구제하고
기르는 德을 상징한다”⁷⁴⁾고 하였으니 希服은 粉米를
象徵한 것이다.

(5) 玄服

玄服은 一章이니, 衣에는 무늬가 없는 玄衣이고
裳에만 靛一章이 있다. 그러므로 玄衣로서 그 服을

칭하였다. 靛은 十二章紋의 마지막 무늬로 「周禮」
에 의하면 “黑色과 青色”⁷⁵⁾이라고 하였다. 그 무늬
는 “己”字가 서로 등을 돌린 형태이니 입금과 臣卜
가 서로 구제하되 惡을 善으로 고친다는 것이다.
동시에 백성들이 惡을 등지고 善을 向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⁷⁶⁾ 대개 左쪽은 青色이고 오른쪽은
black 아니 이것은 君臣이 서로 분별하는 뜻이다.

玄服은 王이 群小祭祀에 着用하는 옷이다. 群小
의 諸神은 서로 形體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神만
을 對象으로 하여 形象화하기가 어려우므로 衣에는
무늬가 없는 것이니 祭服뿐 아니라 形式도 간소하
여 一獻뿐이다. 그러므로 後代에 가서는 王이 親祭
를 하지 않고 臣下로 하여금 祭祀에 임하게 하였
다.

이와같이 冕服의 各各인 袞服, 驚服, 龔服, 希服,
玄服은 衣에 그려진 첫번째의 章紋으로서 象徵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群臣의 冕服은 王의 冕服과同一한 명칭이
니前述한 冕冠과 같이 命의 數에 따라 差를 보였
다.⁷⁷⁾ 즉 公의 服은 袢服以下로 王의 服과同一하며
侯伯의 服은 驚服以下로 公의 服과同一하고 子男
의 服은 龔服以下로 侯伯의 服과同一하다. 孤의
服은 希服以下로 子男의 服과同一하며 卿大夫의
服은 玄冕以下로 孤의 服과同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冕服은 公의 袢服으로부터 卿大夫의 冕服
에 이르기까지 모두 助祭之服으로 着用되었으니
모든 大祭祀에는 이러한 차림이 禮인 것이다. 그레
므로 天子는 十二旒의 冕旒冠에 袢服을 着用하고
先王에 祭祀한다.⁷⁸⁾ 公 역시 같은 袢服을 着用할
수는 있으나 그 紋樣이 다르니⁷⁹⁾ 天子의 袢服은
升龍과 降龍이 있으나 公의 袢服에는 降龍의 紋樣

70) 「禮記」卷五 王制；天子三公, 九卿, 二十七大夫….

71) 「詩經」李元燮 譯解, 國風, 王風, 大車條注。(서울：成均書館, 1977) 111面.

72) 陳祥道「禮書」卷一希冕條；…鄭氏以希爲 繡以繡爲刺謂希粉米無畫然.

73) 上揭書 同條；…社稷五祀之所上止於利人故衣粉米….

7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7面；粉米取其潔白且能養人之意, 苦聚米形象徵有濟養之德.

75) 「周禮」卷第十一冬官考工記上；黑與青謂之靄….

76) 前揭書, 17面；靄, 所以作兩己相背形, 謂君臣可相濟, 見惡改善, 同時有取臣民有背惡向善的合意.

77) 「周禮」卷第五春官宗伯上司服；…公之服自衰冕而下如王之服侯伯之服自驚冕而下如公之服, 子男之服自
龔冕而不如侯伯之服, 孤之服自希冕而下如子男之服, 卿大夫之服自玄冕而下如孤之服….

78) 「禮記」第十三玉藻；天子玉藻十二旒前後連延, 龍卷以祭.

79)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 16面；…天子的衰服有升龍, 降龍的紋樣, 而公側只有降龍的紋樣為樣, 而公側只
有降龍的紋樣為分別.

만 있다. 그러나 天子가 玄冕을 着用하고 群小神들에게 祭祀를 지내는 즉 群臣들도 같은 玄冕을 着用하고 助祭를 받들므로 君臣 간에 존비의 區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禮」에는 天子의 五冕服과 卿大夫가 着用하는 冕服이 같은 명칭으로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여 혼잡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後代 宋의 儒學者 朱熹는 이를 지적하여 「周禮」는 초창기이고 기본적인 것으로 周代에서도 이 制度를 完全하게 實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⁸⁰⁾고 하였다. 그러므로 隋代 以後에는 天子의 麓服 以下는 폐지되어 着用하지 않고 오직 衫服만을 着用하여 圓丘, 方澤, 明堂, 五郊, 雁, 蜡, 封禪, 宗廟, 社稷⁸¹⁾ 등에 祭祀하였다.

3. 祭服의 附隨品

祭服인 冕服은 黃帝 有熊氏가 乾坤을 法받아 衣裳을 바르게 하고 蘭黻무늬를 그려 넣고 大帶를 하여 外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帝舜 有虞氏에 의하여 十二章의 制度를 定하였다. 그 後 夏, 殷을 거쳐 周代에 이르러 冕服으로서의 制度가 이루어졌으니 上述한 바와 같다.

그러나 中國에 있어서 祭服으로서의 冕服, 佩, 綬의 制度가 公式的으로 定해진 것은 後漢의 明帝 永平2年(59)이다. 그 樣式은 周代의 制度에 근거하고 있으나, 皇帝의 冕服을 周代의 九章에서 十二章으로 회복하였고 百官의 祭祀服을 모두 冕服으로 定하였다. 이러한 冕服 以外에 附隨物인 簪, 佩玉, 綬, 大帶, 革帶, 圭, 笏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簪

簪은 祭服이나 朝服에 쓰이는 儀禮用의 앞가리개로 시작하여 後에 무릎가리개가 되니 後代의 蔽膝인 것이다. 太古人们은 사냥을 한 후 고기는 먹고

가죽으로서 먼저 앞을 가리우기 시작하였으니 이것 이 簪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簪은 '市' 혹은 '芾'이라고 하였으니, 「說文解字」에 “市은 韻이다. 上古에 衣로 앞을 가렸으니 市의 형상은 一과 巾의 象으로 帶에 연결한 모양이다.”⁸²⁾라고 하여 巾을 帶에 늘려뜨린 것을 뜻하였다. 그러므로 市은 衣服의 下衣인 衣이 나타나기 前에 人間이 치부를 은폐하였던 最初의 腰衣인 셈이다. 舜 임금은 이러한 意味를 갖고 있는 簪을 처음으로 祭服에 着用하였으니 根本을 잊지 않는다는 뜻으로 祭服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有虞氏는 簪만을 사용하였고 夏后氏는 山紋을, 殷人은 火紋을, 周나라는 龍紋이 있는 것⁸³⁾을 簪로서 着用하였으니, 簪의 始初에는 무늬가 없는 가죽을 着用하였으나 時代가 變함에 따라 山, 火, 龍무늬를 使用하여 後에 무늬로서 階級을 나타내 주는 象徵的인 意味가 되었다. 「事物記原」에 의하면 簪은 가죽의 意味가 있는 것으로⁸⁴⁾ 周代까지는 緼, 赤을 구별하여 가죽으로 簪을 만들다가 魏, 晉이후에 絳紗로 바꾸었다. 簪은 蒂, 簪, 韵이라고도 하였으니 蒂, 簪, 簪은 祭服에 着用하였을 때의 명칭이고 韵은 朝服등 기타 服에서의 명칭이다.

簪의 形態는 天子는 直이니, 直이라는 것은 四角이 곧아서 圓을 줄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諸侯는 前後가 모두 方形이니, 四角을 줄여서 모가나게 하여 天子와 다르게 한다. 大夫는 前은 方形이고 後는 挫角이니 앞은 모나게 하고, 뒤는 모퉁이를 꺾어서 그 위 모퉁이를 둥글게 하여, 諸侯와 다르게 한다. 士는 前後가 모두 正이니 正이라는 것은 直과 方의 중간이니 天子의 士인즉 直하고 諸侯의 士인즉 方이다.⁸⁵⁾ 그리고 簪의 아래 넓이는 2尺, 위 넓이는 1尺, 길이는 3尺이니, 아래 넓이는 땅을 본뜬 것이요, 위 넓이는 하늘을 본떴으며 길이의 3尺은

80) 上揭書, 18面 : …所以宋儒朱熹說 周禮是一個草本, 在周代也不完全按此使用.

81) 「隋書」卷十二, 志第七, 禮儀七.

82) 「說文解字」卷第七 : 市韻也. 上古衣蔽前而已市以象之… 巾象連帶之形.

83) 「禮記」卷十四 明堂位 : …有虞氏服簪, 夏后氏山, 殷火, 周龍章.

84) 「事物記原」簪條 ; 簪字遂從韋韋皮也.

85) ①「禮記」卷十三 玉藻 : 簪… 天子直, 諸侯前後方, 大夫前方後挫角, 士前後正, 簪下廣二尺, 上廣一尺, 長三尺….

②「禮器圖」卷二 簪條, 鄭注 : 直者四角直. 無圓殺也. 前後方者, 殺四角, 使之方, 變於天子也. 所殺者, 去上下各五寸, 前方後挫角者, 圓其上角, 變於君也. 簪以下爲前, 以上爲後, 前後正者, 士賤與君同, 不嫌也. 正直方之間也. 天子之士則直, 諸侯之士則方.

三才를 본뜬 것이다.⁸⁶⁾

黻의 色은 天子는 純朱, 諸侯는 黃朱, 大夫는 黃朱, 혹은 赤芾이나⁸⁷⁾ 「詩經」에 “三百赤芾”⁸⁸⁾이라고 하여 大夫의 蒂을 지칭하였으며 “赤芾金屬”⁸⁹⁾이라고 하여 諸侯의 蒂을 설명하였다.

黻의 무늬는 <圖 3>과 같이 天子는 龍, 火, 山, 三章을 그리고 公侯는 火, 山 二章을 그려며, 卿大夫는 山 一章을 그린다고 하였으니⁹⁰⁾ 天子는 夏, 殷, 周三代의 무늬를 그렸고 諸侯는 夏, 殷의 무늬를 그렸으며 卿大夫는 夏의 무늬만을 그렸으니, 簿로서 夏, 殷, 周三代의 制度를 계승한 것이다. 그러므로 祭服에서 簿을 着用함은 根本을 잊지 않으면서, 形象, 色, 무늬에 의해 君, 臣間에 差異가 나니 이로써, 祭祀를 집행하여 禮의 恭遜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圖 3> 天子·諸侯·大夫의 •
(「禮器圖」卷二, 15面)

(2) 佩玉與綬

佩玉은 玉을 組合하여 만든 修飾品으로, 君子는 반드시 佩用하였으니, 君子의 德을 佩玉으로 形象화한 것이다. 孔子는 玉을 仁, 智慧, 義理, 禮忠誠, 信義, 德, 道의 象徵이라고 하여⁹¹⁾ 最古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君子가 玉을 차는 것은 동작의 緩急을 짐작하고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니 허리의 右側에 차는 玉의 소리는 微와 角의 音에 해당하고 左側에 차는 玉의 소리는 宮과 羽의 音에 해당한다.⁹²⁾ 微와 角의 音은 일과 百姓을 形象化한 것이고 宮과 羽의 音은 임금과 사물을 形象化한 것이다.⁹³⁾

이러한 佩玉은 위에는 玳이 있고 아래에는 雙璜이 있으며 가운데에는 琥, 瑯가 있고 아래 중심에는 衡牙가 있으니 소리는 衡牙로 부터 발생한다. 대개 衡은 마음을 평정하는 것이고 璞은 德을 조절하는 것이며 琥는 평안한 바를 두는 것이요, 牙는 制裁하는 바를 두고 자 하는 것이다.⁹⁴⁾ 그러므로君子가 佩玉을 차고 걸을 때에는 佩玉을 조절하여 동작을 절도있게 하여야 하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침착하고 평화로운 기분으로 있기 때문에 邪惡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周代에는 大佩와 佩璲가 구별되어 冕服에 使用되었으나 戰國以後 그 風俗은 사라지고⁹⁵⁾ 주로 佩璲만 佩用하다가 後漢 明帝때에 이르러 大佩의 制度가 回復되어 後代까지 佩玉으로 불리게 되었다.

「後漢書」에 의하면 君臣의 佩玉은 尊卑에 따라 法度가 있어 三代까지는 유지되었으나 五霸가 전쟁을 계속 치르니 佩黻은 모두 없애고 이와 비슷한 璲을 남겨 章表로 삼았다.⁹⁶⁾ 그래서 簿과 佩는 없어지고 秦代에 이르러서는 采組를 가지고 璲을連結하였으니, 周代의 佩璲로 부터始作된 것이다.

漢은 秦의 制度를 계승하여 天子로부터 百官에 이르기까지 모두 變刀와 雙印을 계속 사용하였다.

86) 「禮器圖」卷二 翠條；鄭注：…長三尺以象三才，下廣二尺以象地，上廣一尺以象天…。

8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14面。

88) 「詩經」第一篇國風, 第十四 曹風, 候人

89) 「詩經」第二篇 小雅, 第二 南有嘉魚之什, 車攻。

90)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18面。

91) 「孔子家語」第八卷, 三六問玉；…夫昔者君子比德於玉溫潤而澤仁也。纖密以要智也。廉而不虧義也。垂知如墜神也…假掩瑜不掩瑕忠也。孚尹旁達信也。氣如白虹天也。精神見于山川地也。珪璋特達德也。天下莫不貴者道也…。

92) 「禮記」卷十三 玉藻；古之君子必佩玉。右微角左宮羽，趨以采齊，行以肆夏，周還中夫見，折還中矩，進則揖之，退則揚之，然後玉金將鳴也…。

93) 「禮器圖」卷二 翠條；…右微角，所以象事與民，左宮羽，所以象君與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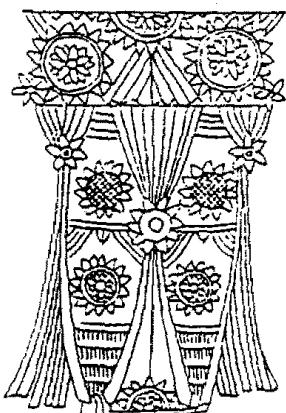
94) 陳祥道, 「禮書」卷十九，佩條；…蓋衡以平其心，璜以中其德，璿欲其有所安，牙欲其有所制…。

95)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169面。

96) 「後漢書」志第三十，輿服下；古者君臣佩玉，尊卑有度，威儀之制，三代同之，五霸迭興，戰兵不息，佩非戰器，載非兵方其，於是解去載佩，留其係璲，以爲章表。

특히 雙印은 漢代에 널리 사용된 佩裝飾品으로 그 길이는 1寸2分이고 넓이는 6分이다. 天子, 諸侯, 王, 公, 列侯는 白玉으로 만들었고, 中二千石以下四百石까지는 모두 黑犀로 만들었으며 二百石에서 私學 弟子는 모두 象牙로 만들었다. 天子는 合絲에 白珠를 빼어 印을 달고, 諸侯, 王以下는 赤色 실끈을 使用하여 印을 매달았다.⁹⁷⁾ 이러한 雙印을 佩用함으로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漢代의 미신적인 佩飾의 慣習이었다.

그 후 後漢 明帝때에는 周代의 大佩와 綬의 制度가 회복되어 公式의 祭祀服制로 規定되어 시행되었다. 綬에는 大綬와 小綬가 있으니, 大綬는 등허리 아래에 늘어 뜨리는 것이며 小綬는 帶의 左右에 걸어 여기에 雙印을 매달아 찼다. 이 小綬를 鍊이라고도 부르니 이는 佩璲로부터 나온 것이다. 佩璲의 制度가 점점 사라지자 그 補助的 役割로서 綬<圖4>가 나타나⁹⁸⁾ 明代까지 그 制度가 유지되었다.



<圖4> 綬
(「三才圖會」衣服一卷)

「禮記」에 나타난 佩玉과 綬의 色을 살펴보면,

天子는 白玉에 綬의 色은 玄色이다. 公侯는 山玄玉에 朱組綬이며, 大夫는 水蒼玉에 純組綬이고 世子는 瑰玉에 梓組綬이며, 士는 瑞玟에 繪組綬이다.⁹⁹⁾ 이와같이 象徵의 意味가 나타나 있는 佩玉은 實用的인 必要에서라기 보다 象徵用으로서 佩用한 것이다. 특히 君子를 象徵하였던 것이 玉이기에, 君子는 覆中이 아니면 항상 佩玉을 찼으며 齊戒時에는 佩玉을 서로 묶어 소리가 나지않게 하였으니¹⁰⁰⁾ 無像의 德을 象徵하는 君子가 有像의 佩玉을 佩用함으로서 德의 表出을 象徵化한 것이다. 綬는 周代의 佩璲을 연결하는 繩으로부터 비롯하였으니 實用的인 面으로부터 발생되어 大綬, 小綬로 나뉘어 지거나 綬로 固定되었다. 이러한 佩玉과 綬는 後漢 明帝때에 公式 祭服과 附隨品으로 制度化된 이후로 약간의 變遷을 거치면서 明代까지 祭服과 朝服의 佩用物로서 지속되었다.

(3) 大帶와 革帶

帶에는 衣服을 여미매는 역할의 大帶와 繩과 綬를 매어 느리는데 쓰이는 革帶가 있다. 이러한 大帶와 革帶를 옛날에는 모두 大鞚이라고 불렀으니¹⁰¹⁾ 「說文解字」에 “鞚은 大帶”¹⁰²⁾라고 하였으며, 「春秋左傳」에서 “鞚屬”¹⁰³⁾ 역시 祭服에서의 大帶를 치칭하는 것이다.

黃帝가 처음으로 帶를 만들었으니, 「大戴禮記」에 黃帝가 蘿蔽衣, 蘿裳에 大帶를 하고 乘龍을 하였다는 것은¹⁰⁴⁾ 衣服을 整齊하기 위한 用途로서의 帶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므로 大帶는 天子로부터 士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着用하는 官服의 带이니 이를 紳帶라고도 불렀다. 「說文解字」에 “帶는 紳”¹⁰⁵⁾이라고 하여, 士 이상이 着用하는 带이기에 紳士

97) 「後漢書」志第三十, 輿服下; 佩雙印. 長寸二分, 乘輿, 諸侯王, 公, 列侯以白玉, 中二千石以下至四百右皆以黑犀, 二百石以至私學弟子皆以象牙. 上合絲, 乘輿以繫貫白珠, 赤綯襪, 諸侯王以下紱, 赤絲襪, 紵綯, 各如其印質….

98)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178面.

99) 「禮記」卷十三玉藻; 天子佩白玉, 而玄組綬, 公侯佩山玄玉, 而朱組綬, 大夫佩水蒼玉, 而純組綬, 世子佩瑞玟, 而梓組綬, 士佩瑞玟, 而繪組綬….

100) 「禮記」第十三卷玉藻; 齊則繕結佩….

101) 陳祥道「禮書」卷十四; 古者革帶大帶皆之鞚….

102) 「說文解字」第三下; 鞚, 大帶也.

103) ① 「春秋左傳」第二桓松, 二年夏四月; …鞚屬游縷….

② 陳祥道, 「禮書」卷十四; …春秋傳所謂鞚屬大帶也….

104) 「大戴禮記」卷第七, 五帝德第六十二; …黃帝蘿蔽衣大帶蘿裳乘龍駕雲….

105) 「說文解字」第七; 帶, 紳也.

106)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166面.

나는 語源도 이 紳帶를 着用한 士라는 意味로부터 發生하였다.¹⁰⁶⁾ 그러므로 紳帶를 두는 것은 恭敬하여 스스로 整齊하는 것이니 繢을 使用하여 結을 앞에다 하고, 鞍帶로서 두는 것은 일이 있다는 것을 象徵한 것이다.¹⁰⁷⁾

「禮記」에 나타난 大帶의 形態를 살펴보면, 天子는 素帶에 朱裏를 하고 끝에 단을 두른다(圖 5). 諸侯는 素帶에 끝을 두르는 것은 天子와 같으나 안을 素로 했다. 大夫는 素帶의 上練과 下練에만 단을 두르고 하리부분에는 단을 두르지 않는다. 士는 練의 單帶로 양쪽 가장자리를 채매고 다만 下練에만 단을 두른다. 居士는 錦帶를 띠고 文을 나타내고 弟子는 紺帶를 띠고 質을 나타낸다.¹⁰⁸⁾



〈圖 5〉天子素帶
(「禮書」, 卷十四)

이러한 帶를 매는데는 組를 사용하나, 天子에서 弟子에 이르기까지 그 넓이는 3寸으로 同一하다. 組의 길이는 紳의 길이와 같으나, 士가 3尺이고 有司는 2尺5寸이다. 이에 대하여 子遊는 사람의

기는 8尺이고, 帶를 두르는 허리에서 아래가 4尺5寸이 된다. 그러므로 紳의 길이는 5尺5寸의 1/3에 해당하는 3尺으로 紳과 鞍과 結의 길이가 모두 같다. 大夫以上의 大帶의 넓이는 모두 4寸이다.¹⁰⁹⁾ 이러한 大帶의 制度는 後代에 계속 이어지니, 「晉書」興服志에 나타난 天子 祭服中 “素帶廣四寸, 朱裏, 以朱緣飾其側”¹¹⁰⁾은 「禮記」의 制度가 그대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大帶를 드리워 꽂는다는 것은 紋을 大帶와 革帶 사이에 꽂는다는 것인니,¹¹¹⁾ 「儀禮」에 “輪帶蟠紋”¹¹²⁾과 그 形式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陳祥道¹¹³⁾는 輪帶라고 한 것은 輪에 원래 帶가 있으니, 輪帶에 革을 사용하여 紋을 帶의 오른쪽에 꽂으니 革帶의 넓이가 2寸이고 거기에 鍔을 찬다. 그러한 後에 大帶를 더하고 革帶를 차니, 紋은 大帶와 革帶 사이에 꽂는 것이다.

이러한 革帶가 中國에 채용되기는 趙의 武靈王이 胡服을 着用한 以後로 보고 있으나¹¹⁴⁾ 이미 春秋時代(722~481 BC)부터 鍔가 裝飾된 革帶가 있었다. 「春秋左氏傳」에 의하면 “齊나라 桓公은 자기의 帶鍔를 쏘아 맞춘 일을 不問에 붙이고 管仲(? BC 645)을 재상으로 삼았다”¹¹⁵⁾고 하여 이미 管仲時代에도 革鍔가 存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晉語에도 申孫의 화살이 桓公의 鍔에 들어가도 원망하는 말이 없은즉 革帶에 鍔를 두어 이것을 고정시키니 後世에 鍔繆”¹¹⁶⁾이라고 하여 위 左傳의 내용을 附言하고 있다. 그러므로 武靈王이 胡服을 채용한時期는 武靈王 19年(BC 307)이니, 春秋時代

107) 「白虎通德論」第八卷衣裳：…所以必有紳帶示謹敬自約整續繪爲結於前下垂… 必有鞍帶者示有事也。

108) 「禮記」卷十三玉藻：天子素帶朱裏終辟，諸侯而素帶終裏，大夫素帶裏垂，士練帶率下辟居士錦帶弟子紺帶。

109) 上揭書, 同面；并紐約用組三寸長齊于帶, 紳長制, 士三尺, 有司二尺有五寸, 子游曰, 參分帶下, 紳居二焉, 紳繩結三齊, 大夫大帶四寸。

110) 「晉書」卷二十五, 志第十五, 輿服。

111) 「漢書」卷二十五上, 郊祀志第五上：其語不經見, 繕紳者弗道, 注：李奇曰：「縉挿也, 挿忍於紳, 紳, 大帶也。」師古曰：「李云縉挿是也, 字本作挿, 挿忽於大帶與革帶之間耳, 非挿於大帶也…。」

112) 「儀禮」卷第十二, 士喪禮。

113) 陳祥道「禮書」卷十四, 革帶條：…輪帶輪輪繩帶不言繩繩者欲見輪自有帶輪帶用革忽摺, 於帶之右旁然則革帶其博二寸其用以繁佩鍔然後加以大帶而佩繫於革忽摺於二帶之間矣。

114) 王國維, “胡服考”, 故服之人中國, 始於趙武靈王, 史林十四, 「觀堂集林卷二十二」, (台北：河洛圖書出版社, 1975).

115) 「春秋左氏傳」第六僖公二十四年春王正月：…齊桓公置射鍔, 而使管仲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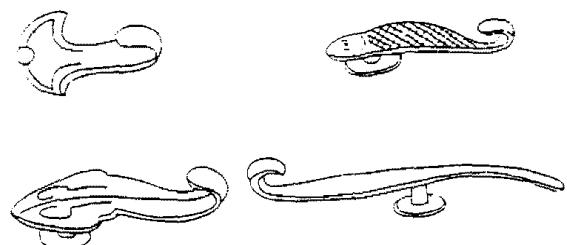
116) 陳祥道, 「禮書」卷十四, 革帶條：…晉語寺人勃鞮曰乾時之役申孫之失集於桓鍔近於袞而無怨言則革帶有鍔以均之後世謂之鍔繆。

以後가 된다. 武靈王이 周紹에게 胡服 衣冠과 具帶와 黃金師比를 주어 王子에게 傳해주었다고 하여¹¹⁷⁾ 具帶와 黃金師比가 나타난다. 또한 「淮南子」에서 趙武靈王이 貝帶에 鵠壽冠을 쓰고 朝會를 하였다¹¹⁸⁾고 하여 위의 具帶와는 달리 貝帶라고 表現하였다. 이 貝帶에 대한 注에서는 “貝飾帶는 胡服이나, 私鉗頭 또는 郭洛帶로 장과 화살촉을 연결한 것”¹¹⁹⁾이라고 하여 胡帶임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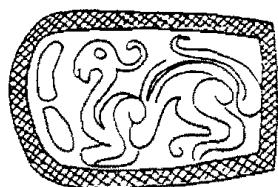
이러한 貝帶에 대하여서는 漢의 孝帝時(195~188 BC)에 郎侍中들이 着用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師古는 注에서 貝帶를 “海貝飾帶”¹²⁰⁾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王國維는 帶는 원래 오랑캐 制度에서 나왔다. 오랑캐 땅은 물이 부족하여 貝綦를 얻기가 어려워 黃金으로서 장식을 하였으니, 貝로는 장식을 아니 하였다. 그러므로 具로 장식한다는 것이 貝가 된 듯하다. 具帶라는 것은 黃金具帶를 생략한 것이라고 하여¹²¹⁾ 貝帶와 具帶를同一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漢의 孝文帝(180~157 BC)가 匈奴王 冒頓(?~BC 174)에게 보낸 物品 가운데 黃金飾具帶와 黃金胥鉗가 있으니 이는 위의 趙武靈王이 賜한 具帶, 黃金師比와同一하다. 이에 대하여 延篤은 注에서 ‘胡革帶鉤’라고 하면서 帶鉤의 이름을 ‘師比’ 즉 ‘胥’, ‘犀’, ‘師’는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다.¹²²⁾ 이 黃金胥鉗에 대하여 張晏은 “鮮卑의 郭洛帶이니 상서로운 짐승의 이름이다. 東胡가 이를 着用하는 것을 좋아한다”¹²³⁾고 하여 鮮卑의 帶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中國古代에 大帶와 革帶는 存在하였으나 鉤裝飾이 없었다. 그러하던 것이 胡帶로 부터

영향을 받아 그 裝飾으로서 帶의 명칭을 부르게 되었으나 校飾革帶, 鞍飾革帶, 金環參鏤帶, 金梁絡帶, 起梁帶는 漢의 명칭이고 郭洛帶는 胡의 명칭이다.¹²⁴⁾ 이러한 胡帶가 春秋戰國時代를 거쳐서 趙의 武靈王에 의해 정식으로 채용된 뒤 秦, 漢代에는 貴賤의 구별없이 庶人에 까지 모두 銅으로 鏽를 만들어 着用하였다¹²⁵⁾ 漢代에는 天子로부터 一般庶民에 이르기까지 普遍化되었다. <圖6>은 漢代의 鉤로 蟑蠍의 形態이나 <圖7>과 같이 帶卡를 사용한 것도 있다.



<圖6> 漢代의 帶鉤
(「漢朝服裝圖樣資料」, 30面)



<圖7> 帶卡
(「漢朝服裝圖樣資料」, 49面)

117) 王國維, “胡服考” 趙策。趙武靈王賜周紹胡服衣冠, 貝帶, 黃金師比以傳王子也。

118) 「淮南子」卷第九, 主術論; 趙武靈王, 貝帶鵠壽鳥而朝。趙國化之。

119) 「淮南鴻烈解」卷第九, 主術論; …以大貝飾帶胡服… 私鵠頭曰郭洛帶位銚鑄也。

120) 「漢書」卷九十三, 佞幸傳 第六十三; …故孝惠時, 郎侍中皆冠鳥鵠義貝帶… 注, 師古曰; …以鳥鵠毛羽飾冠, 海貝飾帶。

121) 王國維, “胡服考” …海貝飾帶, 然此帶本出胡制, 胡地之水, 得貝綦難且以黃金飾, 不容更以貝飾, 當以作貝爲是, 具帶者, 黃金具帶之略。

122) 「史記」卷一百十, 匈奴列傳第五十, 注; 延篇云「胡革帶鉤也」則此帶鉤亦名「師比」則「胥」「犀」與「師」並相近, 而說名異耳。

123) 「史記」上揭書 注; 張晏云「鮮卑郭洛帶, 端獸名也, 東胡好服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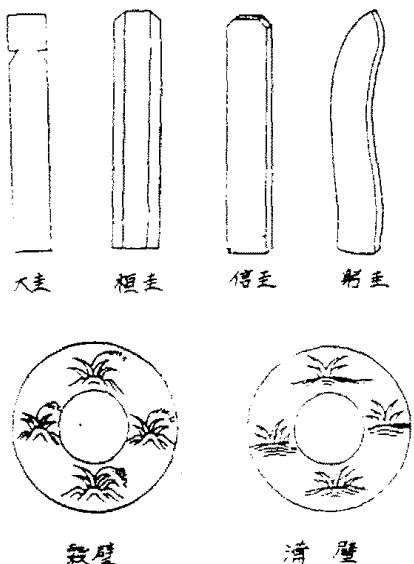
124) 王國維, “胡服考”; 古大帶革帶皆無飾, 有飾者胡帶也。後世以其飾名之或謂之校飾革帶, 或謂之鞍飾革帶, 或謂之金環參鏤帶, 或謂之金梁絡帶, 或謂之起梁帶, 凡此皆漢名, 胡名則謂之郭洛帶。

125) 「格致鏡原」卷十七, 冠服類, 歷代帶制, 中華古今 注; 腰帶自三代以來降至秦漢皆庶人服之而貴賤皆以銅爲鉤以革爲程…。

(4) 圭와 璧

圭와 璧은 制度가 서로 다르다. 王는 天子가 諸侯를 封하거나 神을 모실 때 썼던 端玉이며 璧은 잊어 버리지 않게 기록하기 위하여 손에 드는 것이다.

圭는 六種類의 信表가 있으니, 王은 琥圭를 使用하고 公은 桓圭를 使用하며 侯는 信圭를 使用한다. 伯은 躄圭를 使用하고 子는 穀璧을 사용하고 男은 蒲璧을 使用하니¹²⁶⁾ 〈圖 8〉과 같다. 王은 大圭



〈圖 8〉 圭와 璧
(「禮器圖」, 21~22面)

를 끌고 鎮圭를 잡으니¹²⁷⁾ 神에게 禮를 드리는 것이다. 大圭의 길이는 3尺이며 鎮圭의 길이는 1尺2寸이니, 大圭를 갈고 다듬지 않은 것은 모두 그 질소함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¹²⁸⁾ 大圭의 形態는 머리에서 4寸 이하는 약간 깊해져 있으며, 꼭대기의 4寸은 망치의 머리 비슷하니 이를 終葵首라고 한다. 이것은 굽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¹²⁹⁾ 또한 「贊

大行」에 公의 圭는 9寸이고 侯伯은 7寸이며 子男은 5寸이며 蒲은 모두 3寸, 두께는 모두 半寸이니 上端의 左右는 깎고 角을 없애기 1寸半의 玉으로 만드니 桓圭, 信圭, 躄圭, 穀璧, 蒲璧인 것이다.¹³⁰⁾ 桓圭는 「周禮」疏에 이르기를 桓은 집의 桓楹이니 宮室의 形象으로 그 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四種을 相이라 하는데 기둥형식으로 세우는 것이니 四稜을 둔다. 그러므로 桓圭는 대개 桓으로서 璞飾을 만든다. 信圭의 信은 身이라는 意味이니, 모두 사람의 形體를 形象한 것으로 圭璧 가장자리를 장식한 것이니 신중하게 행동하고 몸을 보호하고자 한다. 躄圭의 躄은 굽었다는 것으로 伯은 侯보다 조금 굽혔다는 뜻이다. 穀璧의 穀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요, 蒲璧의 蒲는 자리가 되니 사람에게 안락을 준다. 그러므로 穀, 蒲로써 璞飾을 할 때는 길이가 5寸이니 圭를 잡지 아니한 者는 나라를 이루지 아니하니,¹³¹⁾ 大宗伯이 이르기를 七命인 侯伯까지는 國을 주고 子男은 五命이므로 國을 주지 않는다.¹³²⁾ 그러므로 公, 侯, 伯까지는 諸侯로 封함에 있어 圭를 주는 것이며, 子男에게는 穀璧 蒲璧을 주는 것이다.

이와같이 五玉은 五等級의 諸侯가 잡는 것이니 「書經」에舜이 五端을 모아서 좋은 달 좋은 날을 가리어 四岳과 州牧들을 만나보고 班端를 여러 諸侯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으로¹³³⁾ 天子가 내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圭를 들어 바칠 때에는 몸을 굽히고 송구스러워하는 품이 마치 무거운 듯이 하며 圭를 위로 들어 올릴 때에는 음하는 듯이 하고 아래로 내릴 때에는 정중히 하며¹³⁴⁾ 왼손으로 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아래를 잡으며 가는데 발을 들지 않고 수레의 바퀴가 뚫임없이 이어지듯 발뒤꿈치를 끌며 가는 것이다.¹³⁵⁾

126) 「周禮」卷第十, 秋官司寇下: 成六端, 王用瑣圭, 公用桓圭, 侯用信圭, 伯用躬圭, 子用穀璧, 男用蒲璧.

127) 「周禮」卷第五, 春官宗伯第三: 典端: …王皆人主執鎮圭纊籍五采五就以朝日….

128) 「禮記」第十一、郊特性: …大圭不琢, 美其質也.

129) 「禮器圖」卷一大圭條: …杼上, 終葵首.

130) 「禮記」第二十一, 雜記下: 贊大行曰, 圭, 公九寸, 侯伯七寸, 子男五寸, 博三寸, 厚半寸. 刻上左右, 各寸半. 玉也.

131) 「禮器圖」卷一, 圭條.

132) 「周禮」卷第五, 春官宗伯上: …五命賜則, 鄭司農云則者法也. 出爲子男, 玄謂則, 地未成國之名… 七命賜國, 鄭司農云, 出就侯伯之國.

133) 「書經」第一篇虞書, 第二章舞典: 轉吳端, 既月乃日觀四岳群牧班端于群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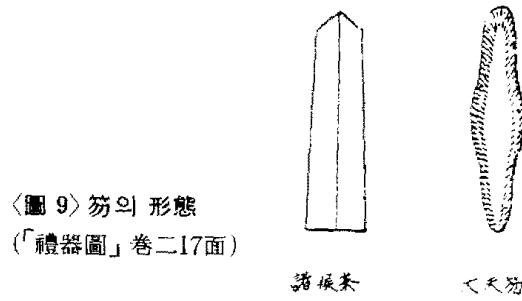
134) 「論語」第十篇, 鄭黨五: 執圭, 鞠躬如也, 如不勝, 上如揖, 下如授….

135) 「禮記」卷二 曲禮下: …操幣, 圭, 璧, 則尚左手, 行不舉足, 車輪曳踵.

笏은 貴賤을 불문하고 모두 잡았으니,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腰帶에 꽂는다. 前述한 摳紳이니 笏을 꽂고 띠를 드리우는 것이다.¹³⁶⁾ 그러므로 임금 앞에서 어떤 일을 말하고 지시할 때에는 笏을 사용한다. 임금 앞에 이르러 命을 받들 때에는 혹시 잊을 경우를 두려워하여 반드시 笏에 쓴다. 그래서 笏은 대나무로 만들며 있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後代의 王이 尊卑의 구별을 세워 玉이나 象牙로 笏을 만들고 또 다른 물건으로 이를 장식하게 되었으니, 天子는 球玉이며, 諸侯는 象牙, 大夫는 魚須文竹, 士는 竹本이나 象牙이다.¹³⁷⁾

이러한 笏의 形態를 보면, 天子는 斑을 꽂으니, 天下를 方正케 하기 위해서다. 諸侯는 茶를 꽂는다. 그 모양은 앞이 돌출되어 있고 뒤는 方正하다. 이는 天子에게 겸양하기 때문이다. 大夫의 笏은 上下를 모두 깎아서 둥글게 만든다. 이는 곧 위로는 天子가 있고 아래로는 자기 임금이 있기 때문에 겸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아래가 모두 둥근 것이다.¹³⁸⁾ 笏의 길이는 2尺6寸이고 중앙의 폭은 3寸이다. 天子와 諸侯의 笏은 中央에서 위쪽으로 가면서 작아져서 上端은 3寸에서 半寸을 줄인 즉 2寸半이요, 下端은 3寸이다. 大夫의 笏은 上端은 天子를 따라 半寸을 줄이고 下端은 임금을 따라 半寸을 줄인 즉 上端, 下端은 각각 2寸半으로 둥근 형태이며, 中央만 넓이가 3寸이다(圖 9)。

이와같이 笏은 일이 있으면 여기에 글을 쓰기 위한 目的으로 생겼으며, 圭는 天子가 公, 侯, 伯에게 내려주는 信表이거나 神에게 禮를 드리는 象徵物로서 使用되었다.



〈圖 9〉笏의 形態
〔禮器圖〕卷二17面)

諸侯茶

大夫笏

III. 色의 象徵性

1. 正色

人間은 萬物의 靈長이기에 天地間을 和合할 수 있고 陰陽의 調和를 이루할 수가 있다. 또 色을 分별하여 이를 衣服에 이용할 수가 있으니 前述한 「書經」의 “…五采彰施于五色”¹³⁹⁾이 그것이다. 五采는 「尚書大傳」에 “天子衣服其文華蟲作續宗彝, 藻, 火, 山, 龍”¹⁴⁰⁾이 있으니 「隋書」에서는 이를 “…山龍은 純青色, 華蟲은 純黃色으로 그렸고, 宗彝는 純黑色, 藻는 純白色, 火는 純赤色이 어우러져서 五采를 이루었다”¹⁴¹⁾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陳祥道는 “山龍은 青色, 華蟲은 黃色이니 겸은색으로 繡를 놓고 宗彝는 白色, 藻, 火는 赤色”¹⁴²⁾이라고 하여 위의 「隋書」와는 달리 作續를 黑色으로 繡를 놓는다고 하였고 藻火를 赤色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尚書大傳」에서의 “天子服五, 諸侯服四, 次國服三, 大夫服二, 士服一”¹⁴³⁾은 采色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이요, 그 章數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는 ‘繪’를 설명하기를 “會五采繡也”¹⁴⁴⁾라고 하여 五采로 繡를 놓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書經」

136) 『晉書』卷二十五, 志第十五, 輿服, 笏: …古者貴賤皆執笏, 其有事則搢之於腰帶, 所謂搢紳之上者, 搢笏耳垂紳帶也.

137) 『禮記』卷十三 玉藻: …雖有執於朝, 弗有盥矣. 凡有指畫於君前, 用笏. 造受命於君前, 則畫於笏, 笏, 畢用也. 因飾焉… 笏, 天子以球玉, 諸侯以象, 大夫以魚須文竹, 士竹本, 象可也…

138) 『禮記』卷十三 玉藻: 天子搢斑, 方正於天下也, 諸侯茶, 前赴後直, 讓於天子也. 大夫前詘後訖, 無所不讓也.

139) 『書經』第一篇虞書, 第五章益稷.

140) 『尚書大傳』卷二, 虞夏傳.

141) 『隋書』卷十二 志第七, 禮儀七: …依尚書大傳… ‘山龍純青, 華蟲純黃作會, 宗彝純黑, 藻純白, 火純赤’, 以此相間, 而爲五采.

142) 陳祥道, 『禮書』卷一冕服條: …山龍青也, 華蟲黃也, 作 黑也, 宗彝白也, 藻火赤也….

143) 『尚書大傳』卷二, 虞夏傳注: …大傳五服亦皆謂繡非畫也.

144) 『說文解字』第十三上.

에서는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을 作會하며 朱
緜, 藥, 火, 粉米, 麵, 故을 繕繡하며… 라고 하여
會와 繡를 구별하였다. 또한 「尚書大傳」에는 天子
의 衣服에 日, 月, 星辰과 麵, 故의 무늬가 없으나
五服이라는 것은 青, 黃, 黑, 白, 赤色의 五采를 치침
하는 것이다.

五色은 「周禮」에 “東方은 青, 南方은 赤, 西方은
白, 北方은 黑이며 天은 玄이고 地는 黃”¹⁴⁵⁾ 이라고
하여 東方, 南方, 西方, 北方, 中央이라고 하는 方位
의 色이 되는 것이다. 方位에 따른 方色을 바르게
하므로 日食과 같은 現像도 壓勝할 수 있다고 믿었
으나 「禮記」에 “各以其方色輿兵”¹⁴⁶⁾이 그것이다.
鄭氏는 注에서 東方衣青, 南方衣赤, 西方衣白, 北方
衣黑이라고 하여 각 方位에 해당하는 諸侯는 그
衣色을 着用함으로서 救日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
다.

五色은 五行에 근거하고 있으며 五行이라는 말은
「書經」에 처음 나오니 “水, 火, 木, 金, 土”¹⁴⁷⁾라는
것이다. 孔子는 五行을 설명하기를 “木, 火, 金, 水,
土의 다섯 가지로 이것이 春夏秋冬 四時를 분담해
萬物을 길러내니 그 神을 五帝라 한다. …五行이
相生한다는 것은 木은 火를 낳고 火는 土를 낳고
土는 金을 낳고 金은 水를 낳는다”¹⁴⁸⁾는 것이다.
이어서 帝王의 德에 배당시켜 “夏后氏는 金德으로
王이 되었으니, 金은 水를 낳는다는 것으로 西方의
白色은 쓰지 않고 北方의 黑色을 승상했다. 殷人은
水德을 얻어 王이 되었으나 赤色을 승상했다”¹⁴⁹⁾
하여 相生으로 色을 설명하였다. 孔子以後 儒學者
들에 의하여 象徵的으로 使用된 五行說은 漢代
이후로는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五行을
우주 조화의 모든 面으로 해석하고 일상의 生活에
까지 결부시키면서 일체만물은 五行의 힘으로生成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모든 萬物에 적용시켰다.
「禮記」에 나타난 季節別 天子의 衣服色은 “孟春에

는 青衣를 입고, 蒼玉을 佩用하며 孟夏에는 朱衣를
입고 赤玉을 佩用하고 季夏에는 黃衣를 입고 黃玉
을 佩用한다. 孟秋에는 白衣를 입고 白玉을 佩用하
고 孟冬에는 黑衣를 입고 玄玉을 佩用한다”¹⁵⁰⁾고
하여 青色, 赤色, 黃色, 白色, 黑色을 春, 夏, 晚夏,
秋, 冬에 각각 배당시켰다.

〈表 3〉은 五行을 五色과 五時, 五方, 五帝와 배합
시킨 것으로 이러한 五行說은 後儒들에 의하여
漢文化圈에 계승되었다.

〈表 3〉 五行表

| 五行 | 五色 | 五時 | 五方 | 五帝 |
|----|----|----|----|----|
| 木 | 青 | 春 | 東 | 青帝 |
| 火 | 赤 | 夏 | 南 | 赤帝 |
| 土 | 黃 | 晚夏 | 中央 | 黃帝 |
| 金 | 白 | 秋 | 西 | 白帝 |
| 木 | 黑 | 冬 | 北 | 黑帝 |

後周時代에 이르러서는 方位와 方色에 上帝에
대한 天子의 祭服이 갖추어졌으니 “祀昊天上帝인 즉
蒼冕蒼衣이고 東方上帝에 祭祀한즉 青冕青衣이며
Southern上帝에 祭祀한즉 朱冕朱衣이다. 地祇와 中央上
帝에 祭祀한즉 黃冕黃衣이고 西方上帝에 祭祀한즉
素冕素衣이며 北方上帝에 祭祀하고 神州社稷에
祭祀한즉 玄冕玄衣이다”¹⁵¹⁾ 즉昊天上帝에만 蒼冕蒼
衣하여 祭祀하고 東方上帝, 西方上帝, 中央上帝,
Northern上帝에게는 각기 方色을 따라 祭服을 갖추었
다.

2. 間色

이러한 色에는 五色과 間色이 있으니, 五色은
五行의 이치가 서로 相生하는 것으로 위의 青, 赤,
玄, 黃, 白, 黑이 있다. 間色은 서로 相剋하는 것이
니, 綠, 紅, 碧, 紫, 繡, 繪이다. 陳祥道는 〈表 4

145) 「周禮」卷第十一, 冬官考工記上; 東方謂之青, 南方謂之赤, 西方謂之白, 北方謂之黑, 天謂之玄, 地謂之黃.

146) 「禮記」卷七, 曾子問.

147) 「書經」第四篇周書, 第六章洪範; 五行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

148) 「孔子家語」第六卷二四五帝: …五行水火金木土分時化育以成萬物其神謂之五帝… 終始相生亦象其義….

149) 上揭書 同條; 夏后氏以金德王色尚黑… 殷人用水德王色尚白… 周人以木德王色尚赤….

150) 「禮記」第六月令: …孟春之月… 天子居青陽… 衣青衣, 服蒼玉… 孟夏之月… 天子居明堂… 衣朱衣, 服赤
玉… 季夏之月… 天子居大廟… 衣黃衣 服黃玉… 孟冬之月… 天子居玄堂… 衣黑衣, 服玄玉….

151) 王宇清, 「中國服裝史綱」(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69) 159面.

와 같이 十干과 陰陽 五行을 부합시켜 間色을 설명하였다.¹⁵²⁾

〈表 4〉 十干과 陰陽五行

| 五色 | 青 | 赤 | 黃 | 白 | 黑 |
|----|----|----|----|----|----|
| 五行 | 木 | 火 | 土 | 金 | 水 |
| 十干 | 甲乙 | 丙丁 | 戊己 | 庚辛 | 壬癸 |
| 陰陽 | 陽陰 | 陽陰 | 陽陰 | 陽陰 | 陽陰 |

間色은 正色의 生數인 甲, 乙, 丙, 丁, 戊와 成數인 己庚辛壬癸의 陰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綠은 木의 甲과 土의 巳가 合하여 이루어지니 青黃이 섞인 것으로 木으로서 土를 이기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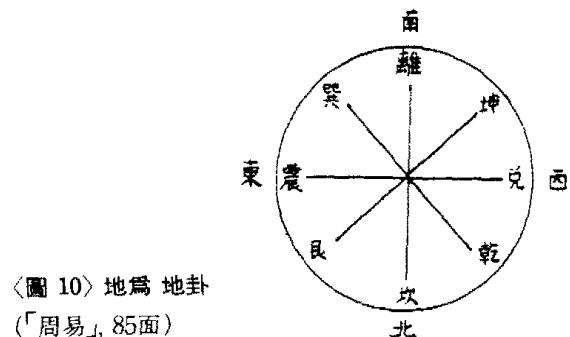
紅은 火의 丙과 金의 辛이 合하여 이루어지니 赤白이 섞인 것으로 火로서 金을 이기는 까닭이다.

碧은 木의 乙과 金의 庚이 合하여 이루어지니 青白이 섞인 것으로 金으로서 木을 이기는 까닭이다.

紫는 火의 丁과 水의 壬이 合하여 이루어지니 赤黑이 섞인 것으로 水로서 火를 이기는 까닭이다.

이상의 緑, 紅, 碧, 紫는 모두 相剋의 관계로 間色이 되며, 相生의 관계가 되는 것은前述한 帝王의 德에 나타난 것으로 夏后氏는 金德을 얻었으나 黑色을 승상하게 되고 殷人은 水德을 얻었으나 白色을 승상하고 周人은 木德을 얻었으나 赤色을 승상했다고 하는 것이다.

五色을 물들이기 위한 염색법으로는 「禮記」에 「季夏之月에 婦官에게 命하여 五色으로 물들이게 하되, 蘭蕙文章은 반드시 옛날 법식대로 물들이고 黑黃蒼赤은 그 물감이 질이 좋지 않으면 안되므로



〈圖 10〉 地爲地卦
('周易', 85面)

감히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郊廟의 祭祀服으로 공급하여야 한다"¹⁵³⁾고 하였다. 蘭蕙文章이란 刺繡의 色을 말하는 것으로 “蘭는 白과 黑을, 蕙은 黑과 青을 말하며 青과 赤을 文이라 하고 赤과 白을 章이라고 한다.¹⁵⁴⁾ 그러므로 染人은 白, 黑, 青, 赤, 蒼色을 염색하여 祭服의 감을 제공한 것이다. 그外 繡色이 있으니 「周禮」에 의하면 “봄에는 흰 무명실을 햇빛에 바래서 여름에 繡玄을 물들인다”¹⁵⁵⁾는 것이다. 繡이란 漢絳으로 「爾雅」에 의하면 “一染이면 繡으로 오늘의 紅色이다. 再染이면 赤으로 赤이다. 三染이면 繡으로 漢絳”¹⁵⁶⁾이라고 하여 繡과 漢絳을同一의 色으로 보았다. 또한 「說文解字」에는 繡을 漢絳이라 하고 絳을 大赤이라 하여¹⁵⁷⁾ 絳을 繡보다 질은 色이라고 설명하였다. 「周禮」考工記에서는 “三入이면 繡, 五入이면 繡, 七入이면 繡”¹⁵⁸⁾라고 하였으며 鄭司農은 注에서 玄은 繡와 繡의 中間色으로 六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玄과 繡은 天地의 色이기에 祭服의 上玄下繡이 된 것이다. 玄衣繡裳은 天玄地黃의 色이니 「周禮」의 八卦中 坤爲地卦로 〈圖 10〉과 같이 土位는 西南에 위치하니 南方의 赤色과 坤의 黃色이 合하여 繡色이 된다. 「禮記」에 “衣는 正色이요, 裳은 間色이다”¹⁵⁹⁾는 說이 부합하여 上衣는 正色인

152) 陳祥道「禮書」卷七五色條.

153) 「禮記」卷六月令…季夏之月…是月也. 命婦官, 染采, 蘭蕙文章, 必以法故, 無或差貸, 黑黃蒼赤, 莫不質良, 母敢詐僞. 以給郊廟祭祀之服…

154) 「周禮」卷十一冬官考工記上..

155) 「周禮」卷第二天官冢帝下; …染人掌染絲帛, 凡染春暴練夏繡玄….

156) 「爾雅」卷四釋器; 一染謂之 繡, 再染謂之 赤, 三染謂之 繡.

157) 「說文解字」第十二下; 繡: 漢絳也. 絳: 大赤也.

158) 「周禮」卷第十一 冬官考工記上..

159) 「禮記」卷十三 玉藻: 衣正色, 裳間色.

玄色을 使用하였고 衣은 間色인 繡色을 사용한 것이다.

이와같이 中國 祭服에 있어서의 服色은 天地로부터 비롯하여 五行과 五時 五方을 배합시켜 色相 자체보다는 象徵의 인 意味로 변천되었으며 특히 孔子以後 後儒들에 의하여 學說로까지 발전하여 明代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IV. 結論

以上으로 公祭禮에 着用하였던 王과 百官의 祭服에 나타난 象徵性을 살펴 보았다.

古代에 있어서 衣服의 概念은 階級集團의 秩序를 지키는 禮思想의 象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祭服은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켜 주는 裝飾의 이거나 實用的인 面보다는 祭祀를 遂行하는데 必要한 外面의인 形式으로서의 恭敬心과 神聖함을 象徵하였다.

이와 같은 研究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祭冠은 鳥獸의 冠, 角, 縫, 胡의 制度를 보고 만들었으며, 冠의 形態가 前圓後方인 것은 向明과 向晦를 뜻하며, 面版의 上이 玄인 것은 天道를 나타냄이요, 下가 繡인 것은 地道를 象徵한 것이다.
2. 祭服의 衣는 天을 象徵하였고 衣은 地를 象徵하였으며, 衣의 前은 陽이 되고 後는 陰이 되므로 前三幅, 後四幅으로 하여 陰陽의 調和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天을 象徵하는 天子는百姓들에게 上下尊卑를 바르게 알도록 하여 天下가 禮에 맞게 다스려 지도록 하기 위하여 祭祀의 對象이나 職分에 따라 大裘, 衰服, 麟服, 麟服, 玄服을 착용하였다.
3. 祭服의 附隨品으로는 鼎, 佩玉과 綬, 大帶와 革帶, 圭와 納이 있다. 鼎은 衣이 나타나기 前에 人間이 恥部를 隱蔽하였던 最初의 腰衣로, 위넓이가 一尺인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요, 아래넓이가 二尺인 것은 땅을 본뜬 것이며, 길이가 三尺인 것은 三才를 본뜬 것이다.

佩玉은 玉을 組合하여 만든 修飾品으로 王子는 반드시 佩用하였으니, 王子의 德을 佩玉으로形象化하였다.

綬는 周代의 佩璲을 연결하는 綬으로 부터 비롯하였으니 實用的인 面으로부터 發生되어 大綬, 小綬로 나뉘어지거나 綬로 固定되어 祭服에서 職分을 象徵하는 佩用物로서 持續되었다.

大帶는 祭服을 여미매는 役割을 하며, 革帶는 鼎과 綬를 매어 느리는 實用的인 役割로 시작되어 後代에는 職分을 象徵하는 佩用物이 되었다.

圭는 天子가 諸侯를 封하거나 神을 모실 때 썼던 端玉이며, 納은 잊어버리지 않게 記錄하기 위하여 손에 드는 것이다. 이러한 圭와 納은 後代에 이르러 實用的인 面보다는 職分에 따라 祭祀中에 禮를 드리는 象徵物이 되었다.

4. 衣은 陰陽五行說에 따른 五色을 基本으로 하여 正色과 間色으로 나누었다.

正色은 五行의 理致가 서로 相生하는 것으로 青色, 赤色, 黃色, 白色, 黑色으로 五行과 五時와 五方과 五帝를 象徵하였다.

間色은 五色인 青色, 赤色, 黃色, 白色, 黑色이 서로 相剋하는 것으로 綠色, 紅色, 碧色, 紫色, 繡色, 繩色이 있다.

이러한 正色과 間色을 祭服에 使用하였으나, 上衣는 正色인 黑色(玄色)을 取하였고 衣은 間色인 繡色을 取한 것이다.

이와같이 中國 祭服에 있어서의 象徵性은 主로 天, 地로부터 시작하여 陰陽五行說과 부합시켜, 孔子 以後 後儒들에 의하여 學說로까지 발전되어 明代에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参考文獻

- 1) 「格致鏡原」, 奎章閣本.
- 2) 高承, 「事物紀原」, 台北: 商務印書館, 1965.
- 3) 「孔子家語」, 李民樹譯, 서울: 乙酉文化社, 1972.
- 4) 「論語」, 張基槿譯, 서울: 明文堂, 1988.
- 5) 「大戴禮記」, 四部叢書刊史部.
- 6) 「大典會通」, 韓國古典國譯委員會譯,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60.
- 7) 「白虎通德論」, 四部叢書刊史部.
- 8) 司馬遷, 「史記」上, 下, 台北: 古新書局, 中華民國65年.

- 9) 杉本正年, 「東洋服飾史論考」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1979.
- 10) 「尚書大傳」, 四部叢書刊史部.
- 11) 「書經」, 車相轅譯, 서울: 明文堂, 1985.
- 12) 「隋書」,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7.
- 13) 「詩經」, 金學主譯, 서울: 明文堂, 1988.
- 14) 「詩經」, 李元燮譯, 서울: 成均書館, 1977.
- 15) 「禮記」, 上, 中, 下, 李相玉譯, 서울: 明文堂, 1988.
- 16) 「禮器圖」.
- 17) 王關仕, 「儀禮服飾考辨」, 台北: 文史哲出版社, 民國66年.
- 18) 王國維, 「胡服考」「觀堂集林」卷第二十二, 台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 19) 王字清, 「歷運服色考」, 國立歷史博物館, 中華民國60年.
- 20)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서울: 教文社, 1982.
- 21) 「儀禮」.
- 22) 「爾雅」, 中華書局據永懷堂本校.
- 23) 「周禮」, 四部叢書刊史部.
- 2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75年.
- 25) 「周易」, 金敬琢譯, 서울: 明文堂, 1988.
- 26) 「晉書」,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7.
- 27) 陳祥道, 「禮書」, 四庫全書珍本五集.
- 28) 「春秋左氏傳」上, 文璇奎譯, 서울: 明文堂, 1987.
- 29) 「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7.
- 30) 漢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 서울: 東洋服飾研究院, 1984.
- 31) 許慎, 「說文解字」, 四部叢書經部.
- 32) 「淮南子」, 李錫浩譯, 서울: 乙酉文化社, 1982
- 33) 「淮南鴻烈解」.
- 34) 「後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影印本, 1977.
- 35) 「欽定古今圖書集成」, 陳夢雷編, 鼎文書局.

Abstract**A study of Symbolics of Chinese Liturgical Vestments**

Lee, Sun Hee

This thesis was designed to study Symbolics of Chinese Liturgical Vestments. Chinese who regarded the life of human beings as the combination of heaven and earth considered garments as the traditional product of the movement of nature. Accordingly, they thought human beings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composed by heaven and earth and the chief of all things; therefore man only can utilize clothes to distinguish from all of the colours.

This views of clothes led to the development of liturgical vestments esteemed courtesy than anything else, especially the thought of courtesy associated with Confucius who regarded courtesy as the highest things and since then the theory of Five Elements and courtesy were inherited by all the adherents of Confucius. Yin and Yang Five Elements in the liturgical vestments was given absolute symbolics in both formative side and in colourful side.

Results of research studied in this wa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1. The crown of rites was made imitating after the system of head, horn, beard, bread of birds and beasts and that form of crown is front-circular and back-rectangular meant to be towards light and dark. That the upper part of faceplace is black represented the way of heaven and lower part of red symbolized the way of earth.

2. Upper vestment of liturgical rites symbolizes heaven and outskirt represented earth. So front of outskirt is YANG and back is Yin. It is why they are going to harmonize positive and negative making front part three width and back part four width. Therefore, emperor who symbolizes heaven

made the subjects recognize high and low and wore Dae-gu(大裘), Kon bok(袞服), Bel bok(幣服), Chui bok(垂服), and Hyon-bok(玄服) according to the object and position of rites so that he may rule the country based on courtesy.

3. As an accessory of liturgical vestments, Bul(緉), Pae-ok(佩玉), Su(綬), Dae-dai(大帶), Hyok-Dai(革帶), Kyu(圭), and Hol(笏) were used.

Before Bul(緉) was used man dressed skirt as the first waist-dress in order to conceal intimate part of the body.

Pae-ok(佩玉), as decoration blended with jade was worn by men of virtue, so men of virtue symbolized morality and virtue by Pae-ok.

Su(綬) began from Yeok(綬), connected with Pae-su(佩璲), in Chou-dynasty is said to be originated by practical needs and they are divided into large Su and small Su, and maintained as decoration to signify the class positions.

Dae-dai(大帶) did the work as not to loose the liturgical vestments and leather belt hang Bul(緉) and Su(綬) to begin as the function of practical use are in later years it became decoration to symbolize the class position.

Kyu(圭) was a jade used when emperor nominated feudal lords and observe ceremony to God

and Hol(笏), was held in hands to record everything not to forget. These Kyu and Hol became to offer courtesy during the time of rites and in later years it became used according to class position rather than practical use.

4. As far as colours are concerned, colours based by five colours according to YIN-YANG Five Elements theory and they were divided into a primary colour and a secondary colours.

Primary colours corresponded with the theory of Five Elements each other, 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symbolized Five Elements, five hour space, five directions, and five emperors.

Secondary colours contradict with 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and another as a primary colour and they are Green, Scarlet, Indigo, Violet, Hun(纁) colour, Chu(緇) colour, and Chi(緇) colour. This primary colour was used in liturgical vestments, that is, upper-vestments used black colour as primary colour and outskirt was used Hun(纁) colour as secondary colours.

Thus symbolism in Chinese liturgical vestments mainly began with heaven and earth and corresponded with YIN-YANG Five Elements School. They were developed as the scholarly theory and Confucius and his followers in the later days and continued up to Min-dynasty.